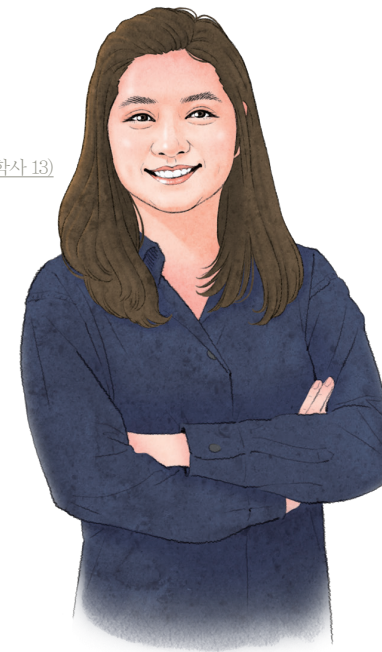


Seoul Business Letter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소식지

2020
Vol.153

강미나(학사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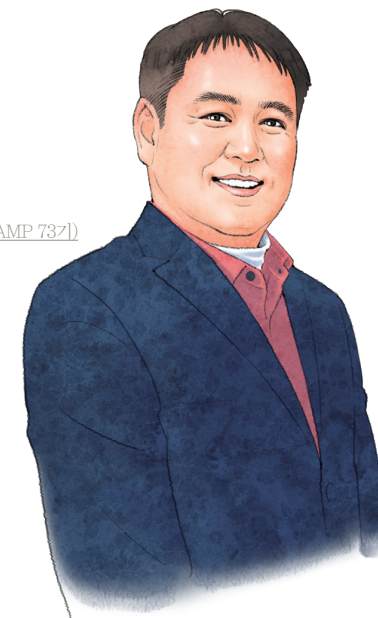
이유재 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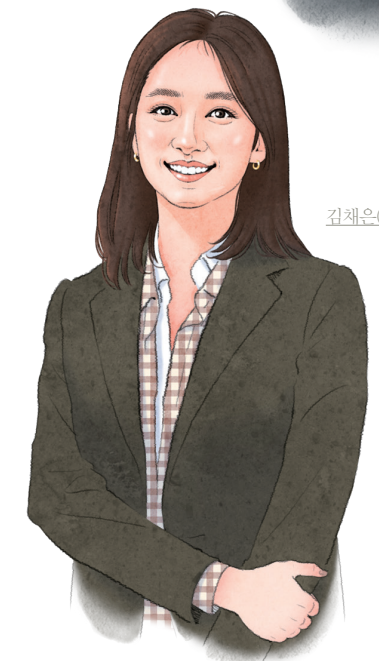
박보경 교수
(박사 13)



김원길(AMP 73기)



김채은(학사 13)



CONTENTS

4

Dean's Message

- 취임사 / 이유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장

- 신입 학장단 소개

SNU BUSINESS PEOPLE

8

- 43년 구두 인생, 힘들어도 관찮은 구두장이
김원길 대표(AMP 73기)

- 해외에서 전해온 반가운 소식
국립 대안대학교 박보경 교수(박사 13)

- 맨땅에 헤딩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 창업가
강미나 동문(경영 13, 벤처경영, 공업디자인)

- 배우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다 / 김재은 동문(자유전공학부 13)

SNU BUSINESS SPECIAL 1

16

- 글로벌 챌린지 세 번째 이야기 / 김현재(학사 14)

- 지역 사회 청소년들과 함께 공동체로, 더 나아가 미래로
최종경(경영 18)

- 2019 DB-SNU Business Case Competition

SNU BUSINESS SPECIAL 2

22

- 특별하고 재미있는 도전을 제공하는 "몽우"

SNU BUSINESS SPECIAL 3

24

- Global Residency Program
MBA 단기 해외방문 프로그램

- 10번째를 맞이한 EMBA 경영인의 밤

SNU BUSINESS REVIEW

28

- 구성원의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의 비선형관계에 관한 연구:
상사의 근접관찰의 조절효과 / 윤석화 교수

- 전기차 구매에 있어서 심리적 요인 및 행태적 요인의 역할:
한중 전기차 소유자의 비교연구 / 주우진 교수

-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현재 주가가 미래 이익을
반영하는 정도 / 최종학 교수

SNU BUSINESS SITE SKETCH

34

- 경영대 하이라이트

- MBA / EMBA 소식

- CFO / 동문리더스클럽 / 벤처경영기업가센터 소식

SNU BUSINESS NETWORK

40

- 전공 소식

- 교수 소식

- 동문 소식

- 발전기금 소식



약력

-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스탠포드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미시간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정년보장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 저서로는 '고객가치를 경영하라', '서비스마케팅', '죽은 CRM, 살아 있는 CRM' 등이 있다. 한국마케팅학회 최우수논문상, 한국소비자학회 최우수논문상, 한국경영학회 중견경영 학자상,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등을 수상했다. 그리고 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학술진흥재단의 우수학자로 선정됐다.
- 한국마케팅학회장, 한국소비자학회장, 서비스마케팅학회장, 미국소비자학회 자문위원,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 서울대 경영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공공기관고객만족도지수 등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품질모형을 개발했다. 국내외 학술지에 18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고객만족 및 국민행복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취 임 사

Dean's Message

경영대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십 년의 시작인 2020년, 경영대 학장을 맡은 이유재입니다.

저는 지난 스물 일곱 해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과 함께했습니다. 이곳은 제게, 학생을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뜻 깊고 아름다운 시간을 준 고마운 곳입니다. 이 모든 시간은 사랑스러운 제자들과 자랑스러운 동료 교수님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저는 '과연 얼마나 학생과 동료들, 그리고 우리 대학을 위해 일했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쉽고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몰려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아닌, 여러분과 학교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 또한, 앞으로의 책임감과 헌신의 마음이 저의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제가 꿈꾸는 경영대학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구성원 개개인은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고, 대학도 더불어 성장하는 건강한 조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에 필요한 것은 구성원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제가 학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점을 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문과 지성의 본산으로서 대학의 본질적 가치를 정립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학이 '최고'라는 이름을 얻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창의적 인재 교육, 연구의 리더십 확보,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라는 대학 본연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영대가 한국을 대표하는 품격 있는 지적 공동체로서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둘째,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 안의 정보를 온전히 공유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소모적인 편 가르기를 넘어 다양함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통제나 감시가 아닌, 지원과 격려를 통해 구성원의 잠재력과 역량이 발휘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전에 부학장을 역임했을 때 우리 대학 최초로 '경영대인의 밤'을 기획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이자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경영대 식구들이 학술,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우리에겐 '우리만의 문화'와 '경험의 공유'가 낳은 화합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함께하는 즐거움의 가치가 소통과 화합의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셋째, 연구가 구성원의 ‘굴레’가 아닌 ‘사명’이며 ‘기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 미시간 대학교에서 정년 보장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연구하며 피 말리는 불면의 밤들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희생해야 했던 소중한 가치도 기억합니다. 연구의 결실을 맺기까지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을 저 역시 절실히 느꼈기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석/박사과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실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한 자원을 유치하겠습니다. 교수 별 생애주기에 맞는 연구 진행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수들에 대한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연구비 지원을 늘려 학문적으로 영향력 있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새로운 분야를 여는 도전적 과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긴 호흡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영대학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우리 경영대는 탁월한 연구로 경영학의 발전을 선도하며,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교수님들과 동문들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우수 대학과 다양한 교류를 하겠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하고 구성원들과 공유해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다양한 산학협력활동으로 기업과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가 발전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사회공헌프로그램을 통해 존경 받는 대학의 위상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이러한 내실 있는 정직한 노력을 대중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교수님들의 다양한 업적을 외부에 알리고, 우리 대학의 크고 작은 성과들을 기업, 정부, 언론과 공유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대학교 내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겠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서울대 내에서 대학과 본부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아 뜻하지 않게 서로 불이익을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만들지 않고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경영대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본부와 협조하며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서울대학교와 경영대학이 상생하는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물 일곱 해 몸담은 경영대학에 빚진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아는 길, 늘 만나던 사람을 만나는 길에도, 상대보다 먼저 도착해 만남을 준비하는 마음을 지녔다는 것이 여러분께 내세울 수 있는 저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맡겨주신 중책에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영대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유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장

이 유 재



왼쪽부터 최종학 MBA부학장 / 이유재 학(원)장 / 조승아 학생부학장 / 김상훈 교무부학(원)장

제19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 취임

1월 23일 제19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으로 이유재 교수가 취임했다. 교무부학장에 김상훈 교수, 학생부학장에 조승아 교수, MBA부학장에 최종학 교수가 각각 중책을 맡았다.



중학교 졸업 후 구두기능공이 연 매출 500억 원대의 제화 업체를 이끄는 수장이 됐다.

국내 최고의 컴포트 슈즈의 명가 바이네르의 대표이자,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잔치를 주최하여 노래하는 가수이며, 가족처럼 직원들을 챙기는 든든한 지원자이기도 하다.

본인만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제19회 서울대 AMP 대상을 수상한 김원길 대표를 만나보았다.

시골의 구두공, 세계적인 구두 회사 '바이네르' 대표가 되기까지

김원길 대표는 중졸 학력으로 오로지 구두 기술자가 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해 가난한 구두공에서 세계적인 구두 회사 대표가 됐다. 17세에 충남 서산군에서 구두장의 삶을 시작한 김원길 대표. 시골에서는 더이상 배울 게 없다는 선배 구두장의 조언에 따라 서울로 상경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그는 서울 영등포의 작은 구두점을 시작으로 중국동의 참스제화, 인천의 케리부룩으로 근무처가 커질수록 성공에 대한 꿈도 함께 커졌다고 했다. “구두 기술자의 길에 입문하고 13년 만에 부푼 꿈은 ‘내 사업을

해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1990년 구두 부속품을 제작하는 원길상사를 열고, 이후 1994년 법인 안토니 제화를 설립해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인 바이네르 제품을 독점 수입하다 2011년 바이네르를 인수하게 됐고, 현재는 컴포트화(편의성을 강화한 신발) 부문에서 국내 1위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좌절과 극복의 연속

김 대표의 인생에는 영광과 실패가 동시에 있다고 했다. 케리부룩에서 대우가 보장된 기술자 자리를 과감히 던지고 관리자로 변신해 기록적인 매출을 일궈냈다. “숙련공이던 스물 대어섯 시절 저에게는 ‘높은 수입을 유지하면서 구두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는 그 물음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죠. 구두 기술자로 일해서는 죽을 때까지 구두산업 전체를 볼 수가 없겠다 싶었죠. 관리업무와 영업을 해서 경영자가 되면 산업이 보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는 1985년 생산관리부로 이동하여 사내 최고 매출을 잇달아 올렸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위기가 찾아왔다. 승승장구하던 그는 주위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결국 사직서를 내고 1990년 회사를 나왔다. “결과적으론 저를 내쫓아준 회사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어서 고맙기도 합니다. 케리부룩이 나의 인생 사관학교였던 것처럼, 첫 직장에서 배우고 터득했던 모든 것이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key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독립하여 새로운 파트너 바이네르를 찾아 성공의 단맛을 보지만, 또다시 IMF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는 “어떤 일이든 쉽게 되는 것은 없다. 항상 준비되어 있으려고 노력했고, 바이네르에 위기가 왔을 때 좋은 기회로 내가 인수할 수 있었다.”며 위기를 극복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지은 가사처럼 ‘힘들어도 괜찮아, 힘든 건 나의 추억이니까, 때로는 힘들어 쓰러지면 오후이처럼 일어날 거야.’라는 생각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한다.

직원과 사회를 생각하는 존경받는 기업의 경영철학

김 대표는 ‘우리도 행복하게’라는 기업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직원복지와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돈은 잘 쓰기 위해 열심히 버는 것’이라며, 실제로 연간 10억 원 정도를 사회공헌에 쓰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특히 매년 5월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잔치를 열어 직접 사회를 보고 자신이 쓴 곡을 열창하며 흥을 돋운다고 했다. “효도 잔치를 열 때 어르신들이 내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저만의 노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을 담아서 직접 가사를 썼어요. 작곡은 공정식 선생님께서 해 주셨고요. 노래방에

가면 등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창업자금 지원과 멘토 역할도 함께하며 존경받는 기업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직원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고객에게 사랑받기 위한 최고의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두를 직접 제작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정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

김원길 대표는 앞으로도 항상 상황과 경기에 맞는 구두가 무엇인지 고민하여 상품으로 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두가 안 팔리는 것은 경기와 상관없이 팔리는 구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어, 김원길 대표는 ‘세상을 아름답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그 속에서 우리도 행복하게’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최고가 되는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바이네르는 19년도 가을 국내 코스트코 매장에 여성용 앵클부츠 9,000여켤레를 신규 납품했고, 현재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바라보고 있다. 중국,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시아인의 족형 데이터에 따른 제품을 개발하며 기대를 받고 있다.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

“성공의 열쇠는 학력과 자본이 아니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꿈을 갖고 있는냐는 것”이라며,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얻기 바란다고 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 인생의 굵이굵이에서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맞닥뜨릴 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텼으면 좋겠다. 즐겁고 행복한 내가 있기까지 모든 과정이 그랬다.”며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전했다.

AMP 수상 소감

“늘 부족한 저에게 사회의 귀감이 되시는 모든 분들을 뒤로하고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울대 AMP를 통해 재학 중에도 졸업 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됐고, 더 넓은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선배,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전해온 반가운 소식

국립 대만대학교
박보경 교수 (박사 13)

서울대 재무금융 박사 최초로
해외대학(국립 대만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되어 화제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특히, 외국인이 임용된 사례는
재무 분야에서 처음이라고 한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묵묵하게
본인만의 연구를 위해 달렸던 그녀.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성으로 기대를 모으는
박보경 교수를 만나 보았다.

약력

- 2009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2011 뉴욕주립대 버팔로 경제 석사
- 2019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 現 대만대학교 교수

#02



Park BoKyung

Q —— 박사 논문과 추천서만으로 임용되어 많은 화제를 모았던 연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재무적 곤경 상태에 있는 기업의 재무적 곤경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발행 경향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표본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32개국 기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분석 결과, 모든 국가에서 재무적 곤경 상태에 있는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경향성은 채권자의 권한이 강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자 권한의 구성 요소 중, 기업이 법정관리 시 채무 자동 동결^{automatic stay} 또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ebtor in possession} 가 허용되지 않을 때 주식발행 가능성이 증가함이 보였습니다. 즉, 주주와 기존 경영진이 기업의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을 때, 주식발행의 경향이 증가함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재무적 곤경 상태에 있는 기업의 경우 비대칭 정보가 크기 때문에 주식의 발행가격을 낮춤으로써 비대칭 정보 문제를 완화하려 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연구결과는 재무적 곤경 상태에 있는 기업이 주식발행을 재무적 곤경 완화를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Q —— 해외 대학의 교수를 지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도 교수님이셨던 김우진 교수님께서 학생이 박사과정을 졸업 한다는 것은 신병 훈련소를 막 마친 군인과 같다고 늘 비유 하셨습니다. 즉, 박사를 졸업한다는 것은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과정을 이제 겨우 한번 끝낸 것이라 말씀하시며, 졸업은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연구 환경이 좋은 곳에서 첫 시작을 하여 연구자로 성장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 지원이 풍부하고 학기 당 강의 시수가 적은 연구 중심의 대학에 교수로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중심의 국내 대학들은 교수 임용 시 갓 졸업한 박사보다는 교수로서 경험이 있는 박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외대학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해외 대학 중 중화권 대학에 가길 원했습니다. 미국에서 석사를 할 때나 교환학생 시절 중국, 대만 친구들과 가깝게 지냈고 말도 잘 통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화권 나라로 간다면 제가 적응도 잘 하고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중국과 대만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Q —— 박사과정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연구라는 것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분석하고 이런 논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연구과정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연구의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박사과정생의 공통된 고민일 거예요. 그리고 졸업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졸업 후에 대한 걱정도 많았어요. 과연 내가 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힘든 시기일 때마다 아빠처럼 저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하지만 지도해 주실 때는 엄격함과 특유의 꼼꼼함으로 저의 연구의 방향성을 길잡이 해 주신 김우진 교수님,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 감각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조언해주신 이종섭 교수님, 그리고 저를 격려해주시는 저희 과에 다른 교수님들, 또한 박사과정 동기/선후배들이 있었기에 이 힘든 시간을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Q —— 해외 대학 임용을 준비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꿀팁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을 생각하면, 제가 박사과정 시절 방문 학생^{Visiting PhD student}으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Ohio State University에서 1년 반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시기에 OSU에 있는 친구들과 공부하고 교수님께 지도를 받으며 제가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 친구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직접 취업 전선에서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조율하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부분이, 제가 해외 임용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임용을 준비하면서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모의 면접들을 진행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얻은 피드백들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Q —— 앞으로 어떤 연구자, 교수가 되고자 하시나요? 더불어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도 교수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수님께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제게 해주셨던 것 같이 제가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다시 나눌 수 있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박사과정의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믿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여러분의 길 끝에서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3

Kang Minah

맨땅에 헤딩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 창업가

강미나 동문
(경영 13, 벤처경영, 공업디자인)

데이터 사이언스 'Growth Hackers' 학회 창립, 전 조슈아 코스메틱스 대표, 現 '빅펄'의 CEO. 경영학과를 포함한 3개의 전공의 화려한 스펙과 화장품 창업부터 기술 창업까지 다양한 창업 스토리를 가진 강미나 동문을 만났다.

수차례의 인턴 생활과 화장품 사업의 창업 경험

강미나 동문은 어린 시절부터 인류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단체 설립을 꿈꿔왔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면서도 가슴 뛰는 큰일을 하자는 생각으로 학교생활에 임했다. 그러던 중, 창업 사례를 분석하는 경영학과 수업을 통해 매일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는 창업에 가슴이 뛰었고, 마침내 자신의 경영학 DNA와 승부사 기질을 고려하여 '사업'으로 꿈을 이루고자 결심했다. "계임회사 사업개발 인턴, 앱 스타트업 마케팅 인턴 생활을 하며 기본기를 다졌어요. 중국 칭화대 교환학생 시절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창업 아이템을 구상했고, 서울에 돌아와 화장품 스타트업 조슈아 코스메틱을 창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첫 사업은 강미나 동문에게 쉽지는 않았다. 첫 실패 후 기술창업과 벤처회사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글로벌 앱 개발사 하이퍼 커넥트에서 Growth팀으로 인턴 생활을 하는 등 벤처회사들에서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

글로벌 애그리게이터* 서비스 회사 '빅펄'

실패 후 다시 도약하기 위해 모든 회사의 창업자들을 만나 창업 계기, 창업 과정 등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멋진 회사란 어떤 회사인지 항상 고민했다. "제가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성패는 마케팅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마케팅 분야의 지식과 업무 그리고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마케팅을 제공하는 현재의 '빅펄'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설립된 빅펄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영상 콘텐츠 및 시청자 특징을 주기적으로 자동 분석하여 연구·개발한 데이터를 광고주에 제공하고, 크리에이터를 매칭할 때 매칭 수수료를 받는 '유튜브 브랜드 콘텐츠 마케팅 대행' 서비스를 한다. 최근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사이트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검색엔진'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서비스를 공개했다.

스타트업 CEO로의 디딤돌

강미나 동문에게 벤처경영 연합전공에서의 활동과 수업들은 스타트업 시작에 큰 도움이 됐다. 벤처경영 2기로 참여했던 실리콘밸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기술tech 스타트업 회사를 둘러보며 기술을 통한 확장성을 직접 보고 배웠다. "저는 프로그래밍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Growth Hackers'라는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학회를 설립했습니다. 공대 친구들을 데려오기 위해 홍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공동창업자도 만날 수 있었어요. 만약 공동창업자가 없었다면 지금의 '데이터 분석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을 기반으로 한 기술 마케팅을 창업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또한 새롭게 팀을 꾸리고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여 실현해보는 벤처경영 수업들과 다양한 네트워킹 자리들을 통해, 사업 시작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었고 창업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이영민 교수님(現 한국벤처투자)의 '벤처 사업 기회 연구' 수업이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특히, 수업을 통해 토스를 만든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진 대표, 박희은 알토스 수석 심사역(과거 '이음' 데이팅 앱 서비스 대표) 등의 수많은 스타 창업자들이자 학교 선배님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고, 이는 창업할 때 많은 귀감이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

빅펄은 앞으로도 계속 고객이 '우와' 할만한 제품/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그녀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고객'이 우선이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가까운 미래에는 시장 흐름에 맞춰 글로벌 애그리게이터 앱 서비스로 성공적인 도약을 하여 국내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현재 회사 팀원들과 수십 년 동안 함께 일하며 새로운 스타트업을 또 낳고, 최종적으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되었으면 합니다(웃음)."

글로벌한 유대인 네트워크가 정·재계를 움직이는 자산가들인 것처럼, 그녀와 주변 사람들이 한국인 네트워크 자산가들이 되어서 인류나 세계를 위한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나가는 미래를 기대해본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고객'이 우선이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다.

1) 애그리게이터란,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중 (1) 유저 인터페이스를 설계 & 확보하고 (2) 사용자 1명 데려오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3) 1명을 데려오면 1명을 데려오기가 더 쉬움(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서비스

배우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다

‘베베(Babe)’, ‘경계인(境界人)’, ‘선율의 시간’

알려지지 않았지만 꾸준히 본인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며 진짜 배우가 되기 위해 한결같이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김재은 동문.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순간들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녀를 만나보았다.

김재은 동문
(자유전공학부 13)

#04



자랑스러웠던 ‘경계인’ 속에서의 나

‘경계인’이라는 작품에서 여주인공 장웨이 역할을 맡게 된 김재은 동문. 이 영화는 광주 출신의 정율성 작곡가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다. 남자 상대역으로는 뮤지컬배우 정동화가 참여했다. 중국인민 해방곡 등 굵직한 곡들을 많이 작곡했던 정율성 작곡가와 함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일본군 주둔지에 잠입했으나, 여주인공이 붙잡혀 오랫동안 고문을 당한 후 상처투성이가 되어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정율성과 재회하는 내용이다. 김재은 동문은 이 영화에서 정율성과 재회하는 긴 독백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우선 인물 자체가 제가 절대 가볍게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고, 그중에서도 아픈 일들을 모두 겪은 후의 모습을 연기한다는 점이 저를 그 장면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현실적으로는 중국어로 그렇게 긴 독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꼭 잘 해내고 싶은 부분이기도 했고요. 다행히 대본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촬영장소와 현장 느낌이 너무 잘 맞아서 제가 준비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여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날 촬영이 끝난 후에 함께 고생한 스태프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조금 벅했어요. 마치 이 장면을 위해 고민했던 나와 그걸 봐주신 분들이 현장에서 교감이 된 것 같았어요.” 해외에서 진행되는 촬영이었지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배우로서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철저히 준비한 김재은 동문. 중국어라는 언어로 진행되어 쉽지 않은 앓았던 작품 ‘경계인’은 김재은 동문에게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예정이다.

앞으로의 꿈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꿈을 물었다. “순간들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은 ‘연기’가 가장 저를 매료시키는 표현의 형식이지만, 저는 글과 음악도 좋아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순간들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배우로서 쉽지 않은 길을 걷는 것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아요. 말로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아닌 어떤 누군가의 실제 삶을 내 몸에 입히려는 감각에 집중하고 또 최선을 다해 상상하는 일이 저에게는 정말 의미 있다고 느껴집니다. 또 그게 실제로도 누군가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연기가 좋습니다(웃음). 더 연기하고 싶은 의욕은 언제나 많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그저 진심을 다해 조금씩 배우로서의 길을 닦아 나아가고 싶어요. 이제 걸음마를 떴으니 또 연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서 더 열심히 걷고, 뛰어보려 합니다.”



‘경계인’ 촬영 현장

어린 시절의 꿈

김재은 동문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가 꿈이었다. 예고 진학을 위해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를 단정 짓기보다는 더 넓은 세상에 많은 직업을 탐색해 볼 것을 권유하셔서 잠시 꿈을 접었다. “일단,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문화예술과 컨설팅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경영학과 인류학 공부계획을 바탕으로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펼쳐나간 김재은 동문. 음악, 영화, 문학의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밴드활동, 연기, 글쓰기 등을 꾸준히 해나가며 관련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현재는 부모님께서도 많은 응원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배우로 가는 길

서울대학교 총연극회와 영상제작동아리 이미지밴드 활동을 시작으로 배우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발을 넓혀온 김재은 동문. 괴테 파우스트 작품을 각색한 음악극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펠레스 역할을 맡았다. “서사를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이라 저에게는 배우로서 큰 배움을 주는 역할이었어요. 그 무렵 참여했던 독립영화들에서 희열을 느끼며 졸업 후에도 연기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영화 연출, 제작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결국은 배우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장 큰 울림을 주었다고 한다. “학업을 병행했던 것 치고는 운이 좋게도 오디션에 꽤 많이 봤어요. 전공생이 아니다 보니 정말 맨땅에 헤딩이었죠. 하지만 매번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좋은 인연들을 오디션을 통해 많이 만나게 되어서 돌아보면 떨어졌더라도 의미 없는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웃음).”

Global Challenge

글로벌 챌린지, 세 번째 이야기

김현재 학사14

2019 글로벌 챌린지를 통해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총 25명의 학부생들이 싱가포르로 떠났다. 2박 4일 동안 글로벌 기업을 방문하고 경영대학 동문을 만나는 일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방문해 현지 업무 환경을 경험하고 실무자로부터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새로운 배움을 만들었다. 특별한 여름방학을 보낸 김현재(학사14) 참가 학생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방문기업 및 활동 소개

[BP]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방문한 기업은 BP였다. 흔히 석유회사라고만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BP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서 미래 에너지 수요 예측과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에도 큰 노력을 쏟고 있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러한 회사의 정체성과 비즈니스 모델을 퀴즈, 트레이딩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달해주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Q&A 세션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계신 네 분의 한국인 선배님들께서 입사 경로, 근무 환경 등에 대해 가감 없이 설명해주셨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의 비전과 철학을 직접 경험하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KOTRA]

본격적으로 해외에서의 경력을 준비하려면 특정 기업에 관한 관심 이외에도 해당 국가의 제도·문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싱가포르의 산업구조, 근무 환경뿐만 아니라 비자, 세금, 임금 수준에 대해 폭넓게 배울 수 있었다. 이는 싱가포르 전반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여주어 다른 기업을 방문했을 때 조금 더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 밖에도 KOTRA에서는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 정부 간 수출계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분야에서도 국익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많음을 깨달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LinkedIn]

링크드인은 비즈니스 중심의 SNS로 해외에서의 커리어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서비스이다. 최근에는 단순히 구직자의 커리어·스킬·관심사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넘어서 마케팅·인사관리에 대한 컨설팅까지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링크드인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부서나, 실제로 프로필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등 실용적인 내용까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점이 특히 유익하게 느껴졌다. 이후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HR, 홍보 등 여러 부서의 선배님들과 소규모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가자 각자의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조언을 받았다. 해외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채용담당자에게 전달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P&G]

소비재 다국적기업으로 유명한 P&G이지만, 경영학과 학생들에게는 뛰어난 마케팅과 브랜드 매니지먼트 능력으로도 익숙한 기업이다. 그만큼 고급 인력을 채용하고 육성하는 데 관심이 많아 능력과 열정이 있는 직원에게는 아낌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입사했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해외 파견 혹은 본사 발령 기회를 주는 등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수많은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성장을 강조하는 경쟁적인 조직 문화와 그에 따른 확실한 보상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점이 세계적인 대기업을 꾸준히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느꼈다.

[ANZ]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은행(ANZ)에서는 싱가포르의 금융 산업과 이에 따른 회사의 전략을 배울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산업의 변화나 한국과 싱가포르의 금융 환경 차이 등의 주제 등을 다뤄주었는데, 아시아 금융 최전선에서 직접 근무 중인 현직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더 와닿았던 것 같다. 특히 경영학과 특성상 금융업계에 관심을 가진 학생이 많았던 만큼, 진로에 대해 귀중한 조언도 덧붙여 주셔서 더욱 유익한 시간이었다.

참가 소감

기나긴 노력 끝에 서울대학교를 입학했지만, 대학 생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아직 스스로가 너무 부족해 보이고, 사회로 나아가기에는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걱정만 커지기도 했습니다. Global Challenge에 참가하게 된 것은 이러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극복해보기 위해서였고,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우선 기업에서는 저희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고, 마냥 낙관적이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상황의 참가자들과 교류하고 서로 아는 정보를 나누면서 심리적·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배경과 관심사는 모두 달랐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더 폭넓은 고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준비과정부터 귀국할 때까지 아낌없는 조언과 과분한 지원을 해 준 학교와 동문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은혜는 참가자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꼭 다시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의 참가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경영학과에서는 다양한 진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반대로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다 보면 어느새 무엇이 중요한지 까먹고 눈앞에 닥친 일에만 급급하게 되기도 합니다. Global Challenge는 이러한 바쁜 일상에서 한 발짝 물러나 다시 무엇이 중요한지, 즉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양한 산업군의 세계적인 기업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하다 보면, 다시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고민을 잠시 떠나 더 넓고 큰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를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도움 주신 분들

글로벌 챌린지는 싱가포르에 계신 동문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방문기업 섭외에서부터 후배들과 함께한 만한 준비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동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 글로벌 챌린지 단체사진

지역 사회 청소년들과 함께 공동체로, 더 나아가 미래로

SNU BIZ Dream Mentoring



SNU-BIZ 드림멘토링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산하의 대학생 봉사 단체로, 매 학기 DB그룹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 멘티의 상호성장을 비전으로, 대학생 멘토들은 청소년 멘티들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활동을 멘티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9년 드림멘토링 주요 사업으로 '드림벤처'와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가 진행됐다. 이 외에도 출사여행, 상담, UCC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며,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 멘티들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해 DB인재개발원에서 '드림캠프'를 매 학기 실시해오고 있다.

SNU-BIZ 드림멘토링 사업 - 드림벤처

SNU-BIZ 드림멘토링에서는 '드림벤처'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드림벤처에서는 청소년 멘티들의 관심 진로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벤처 조를 구성하고, 조별로 각 분야와 관련된 진로 탐색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멘티들이 평소에 쉽게 접해볼 수 없었던 진로 활동 체험의 기회를 멘티들에게 제공한다. 벤처 활동을 기획하고 활동에 멘티들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대학생 멘토들도 멘티들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드림벤처> 활동 모습

SNU-BIZ 드림멘토링 사업 -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와의 연계 활동은 '수요자를 찾아가는 봉사활동'이라는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기획했다. 저녁 8시부터 새벽시간까지 운영되는 야간버스로, 위기 상황을 겪는 거리 청소년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 네트워크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한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현장 활동가를 통해 사전 안전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에 진행된 EXIT 활동은 새롭게 기획된 활동으로서 기존의 드림멘토링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더했다. '찾아가는 멘토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대학생 멘토들로 하여금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어떻게 지역 공동체에 기여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할 기회를 제공했다.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활동 모습



Mini Interview

봉사를 통해 성장 하는 '나'

최종경(경영 18)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개 봉사자로부터 수혜자로 연결되는 일방적인 봉사 관계를 떠올리곤 한다. 중고등학생 때부터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의 경험을 쌓아왔지만 대부분이 이러한 일방적 관계에 의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십대 때부터 나에게 봉사활동이란 '남에게 부족한 것을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었다. 봉사활동에 대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나에게 드림멘토링은 매우 신선한 경험으로 다가왔다. '멘.할.있(멘티도 할 수 있다)'라는 독특한 키워드와 함께, 대학생과 청소년 멘티의 상호 성장을 목표로 내세운 드림멘토링은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봉사활동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특히,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밤 신림역 도림천 부근에 위치한 야간 버스에서 시작 했던 청소년센터 EXIT 활동이 많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는 야간 버스 옆의 천막에서 간단한 주전부리를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였는데, 그 날 천막 안에서 본 풍경은 나에게 매우 특별하고도 새롭게 기억 속에 새겨졌다. 추운 겨울날 밤, 야외 천막안에는 거리 청소년들이 쓰는 그들만의 언어, 그리고 그들의 삶이 생생하게 얹혀 있었다. 그리고 우려했던 것과 달리 청소년들은 새롭게 온 멘토들을 크게 낯설어 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소년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고 친근하게 반겨주는 친구들도 있었다. 서로를 역할이 아닌 이름으로 불러주며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하고 장난도 치면서 어느새 그러한 풍경 속의 일부분이 되어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의 멘토-멘티의 관계에서는 멘티가 멘토에게 의지하여 멘토링을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드림멘토링에서 직접 마주한 청소년 멘티들은 이와 달랐다. 청소년 멘티들은 단순히 대학생 멘토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쉽게 접해볼 수 없었던 경험을 멘토들과 함께 해보는 것을 원했다. 다시 말해, 청소년 멘티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단지 대학생 멘토들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친한 언니, 오빠, 혹은 누나, 형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고자 함이었던 것이었다. 한 학기를 돌이켜보면, 벤처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을 멘티들과 함께하면서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나 또한 함께 성장할 기회를 얻은 것 같다.



2019 DB-SNU Business Case Competition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DB김준기문화재단(이사장 이근영)의 후원을 받아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2019 DB-SNU Business Case Competition”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우수대학(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 및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의 우수 대학들과 전략적 제휴를 기반으로 학부 학생들이 창업 및 도전정신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올해는 “창업아이디어

및 경영사례(New Business Ideas and Start-up Case)”를 주제로 진행됐다. 총 147팀 559명(국내 19팀 68명, 해외 128팀 491명)이 참가신청을 했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33팀 120명(국내 10팀 33명, 해외 23팀 87명)의 학생들이 서울에 방문해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DB-SNU Business case Competition Week”에 참가했다.

2019 DB-SNU Business Case Competition 수상팀 명단

순위	학교	팀명	성명 1	성명 2	성명 3	성명4
1위	Chulalongkorn University	Brown Sugar	Manutsanont Lumlerduksanachai	Warisara Wonlopsiri	Porama Sinthunawa	Krit Wannavithyapa
2위	University of HongKong	Eco Evo	Wong Hiu Yau Akemi	Lee Yeun Wai Victoria	Lo Kwan Ho	Yip Wang Leong
	Ateneo De Manila University	Gambo	Timothy Gunther S. Cayanga	Calvin Wayne U. Choi	John Michel C. Lee	Aailyah Nicole R. Monasterial
3위	University of Indonesia	ShARE UI	Anas Izzuddin	Alberto Dhammavirya	Faris Abdurrachman	Mira Alya Safira
	Seoul National University	Verduras	Hyojin Lee	Jaeyoon Lee	Sohyun Kim	Hyein Jeong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Rekindle	Phang Ye Sheng	Peh Zhi Jia	Wayne Tan Jin Yang	Cheang Yu Rong Kieran
특별상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JDA Consulting	Arintha Adelina	Denise Chong Jun Li	Ong Li Wei Janel	
	Hanyang University	HESA	YOUNGKYEONG, KO	HAJOON, LEE	SUNGJOON, LEE	



Write-up on DB-SNU Case Competition 2019

- written by JDA Consulting -



It was an exciting week for us at the recent DB-SNU Case Competition. When we first signed up, we were not sure of what to expect. However, this experience has certainly been an enjoyable ride as we met participants across top universities in Asia, shared innovative ideas and explored many places of interest.

To begin, it was an extremely fulfilling experience as we got to understand the start-up landscape in the region and visited the Seoul Start-up Hub where unique value propositions were developed and nurtured. Moreover, we were able to present to a panel of distinguished judges, gaining valuable insights into different perspectives. We also had the chance to engage in conversations with other teams and were introduced to the myriad of opportunities made possible with technology.

With huge digital advances made in the past decade and the rise of the sharing economy, this competition further opened our eyes to new business models that are out there. Our team chose to work on a case study of innovative companies where we discovered many interesting start-ups in the process. Given that many sectors have benefitted tremendously from technology developments, we decided to focus on the Insurance industry, which has been slower to embrace innovation, but increasingly gaining traction with the emergence of InsurTechs.

Through our research, we came across the company Trov, an on-demand insurer that allows customers to purchase insurance for single items anytime, anywhere. We felt that this will be a great value-add to the sharing economy as customers could buy insurance for their assets when they lend it to others, to cover for a specific period providing them



At the auditorium of DB Training Centre during the awards presentation, from left: Arintha Adelina, Denise Chong, Janel Ong

convenience and an ease of mind. Moreover, Trov has an in-built proprietary algorithm that allows them to offer 'smart premiums', where the amount of premiums is reduced based on the market value of their assets factoring in depreciation.

From this, we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needs-based, customer-centric product to tailor offerings to meet the needs of target customers. It was an incredibly exciting topic for us give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Millennials in an ever-increasingly digital economy. It also reflected the potential that big data and machine learning can bring about (to underwrite policies and price premiums almost instantly).

Beyond the case presentations, the competition brought together students from all over Asia, fostering cross-cultural interactions and forging many new friendships. We were able to explore the streets of Seoul together, visiting attractions like Insa-dong, Namsan Tower and Gangnam.

Overall, our team had a truly enriching experience - academically, socially, and culturally. We are thankful and honoured to be able to be part of the inaugural case competition organised by SNU and DB Group.

기업가센터 창업지원팀 소개 특별하고 재미있는 도전을 제공하는 “몽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2013년부터 벤처경영학 연합전공을 신설해 창업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과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벤처경영기업가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벤처경영기업가센터와 함께 성장하며, 목표달성 자기계발 서비스 마인트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팀 “몽우”팀을 만나 보았다.



왼쪽부터 조하늘 개발 담당 / 이학천 마케팅 담당 / 김선아 전략 담당 / 김병휘 기획 담당 / 최홍규 대표

❶ 몽우팀과 마인트 서비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최홍규 대표 안녕하세요, 목표달성 자기계발 서비스 마인트를 운영하고 있는 팀 몽우입니다. 마인트는 빠르게 성장 중인 자기계발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특별하고 재미있는 도전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소비자들은 마인트에서 개설되는 프로젝트를 신청하고, 8주가량 해당 프로젝트 코치에게 전문적인 코칭을 받습니다.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오퍼레이션 효율화를 담당하는 개발담당 조하늘, 마인트 웹사이트 UX/UI를 디자인하고 유저 플로우를 분석해서 전반적인 서비스 기획하는 김병휘, 공동창업자이자 마인트 서비스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학천, 몽우의 향후 방향성을 고려하고 마인트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김선아 그리고 총괄 · 운영하는 저까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❷ 몽우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요?

A 최홍규 대표 2018년 10월, 제가(대표) 학교에서 학회(학술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던 친구와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템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안해보고, 그 중에서 저희가 진짜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년 동안 여러 아이템을 테스트해보고, 현재의 마인트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몽우는 작년 초에 모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5월 법인을 설립하고, 9월 현재의 아이템을 런칭했습니다. 2명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는 5명의 팀원이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개발자, 기획자, 마케터, 전략 담당 팀원이 모여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❸ 몽우팀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A 이학천(마케팅 담당) 현재의 아이템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까지 여러 아이템을 테스트해보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예시로 저희 첫 아이템이었던 직장인들에게 짧은 점심 시간 호텔 객실을 대여해주는 데일리 호텔은 수익화가 어려웠습니다. 여러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아이템에 대한 니즈는 확인했지만,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아닌, 실제로 그 비용을 지불하는 아이템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몽우는 앞으로도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❹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A 김병휘(기획 담당) 현재의 아이템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건 빠른 실행 덕분이었습니다. 빠르게 아이템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여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저희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아이템을 테스트하면서 아이템 기획, 제작, 마케팅 노하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인트 서비스를 통해 저희가 기대했던 수준 이상의 시장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몽우는 각자의 역할에서 열심히 일한 팀원들, 저희를 믿고 도와주신 투자사, 벤처경영기업가센터가 있었기에 빠른 실행이 가능했습니다.

❺ 창업을 희망하는 이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A 김선아(전략 담당) 저한테 창업은 재미있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타트업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막대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짧은 시간 동안 빠른 성장을 이뤘고, 지금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모두 각기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창업을 하고 원했던 것을 모두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잘한다면 정말 빠른 개인의 성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❻ 앞으로의 목표는?

A 조하늘(개발 담당) 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몽우가 생각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몽우는 마인트라는 목표달성 자기계발 서비스를 통해서 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가치를 전달하고,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Global Residency Program

MBA 단기 해외방문 프로그램

경영전문대학원은 지난 11월 단기해외방문프로그램 'Global Residency Program(약칭 GRP)'를 실시했다. 서울대 G,SMBA 학생들이 해외 유수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강의를 수강하고 해당국가의 대표 기업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 GRP프로그램은 이탈리아 SDA Bocconi 경영대학에서 진행됐다. 11월 17일(일)부터 11월 23일(일)까지 실시된 GRP 프로그램에서는 SDA Bocconi 대학교 교수진의 강의 세션을 통해 이탈리아 특유의 Family Business와 Luxury Business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과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Dallara와 Lamborghini Automobil 등 현지 기업 탐방을 통해 이탈리아가 주도하는 High-end 스포츠카 제조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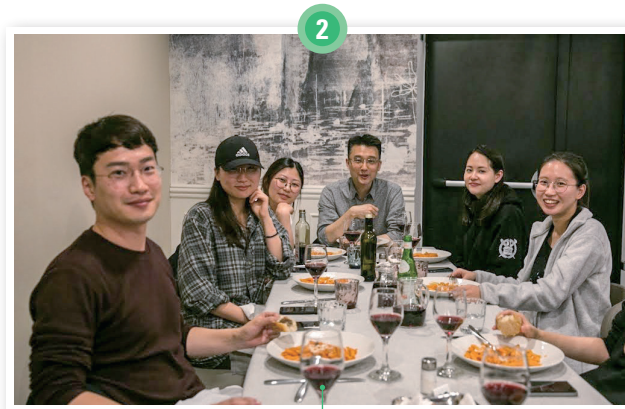


설레는 마음으로 출국하는 MBA 학생들

Dallara 기업 견학



럭셔리 매니지먼트와 가족 경영 비즈니스에 대해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 배우고 토론하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의 첫 저녁식사

람보르기니 슈퍼카와 함께



이탈리아 현지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 및 열정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알지 못했던 이탈리아의 문화 및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더욱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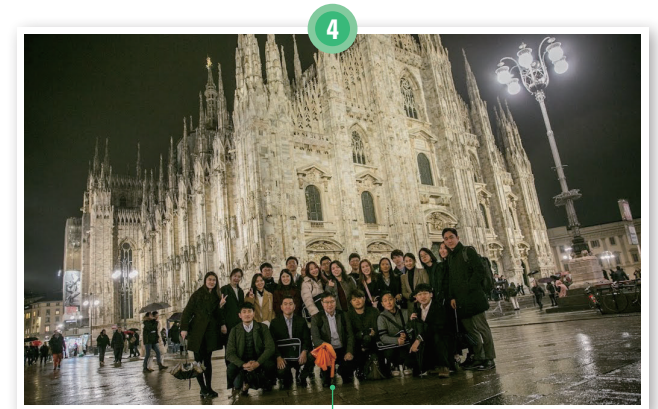


SDA Bocconi에서의 강의 시간

콜로세움에서도 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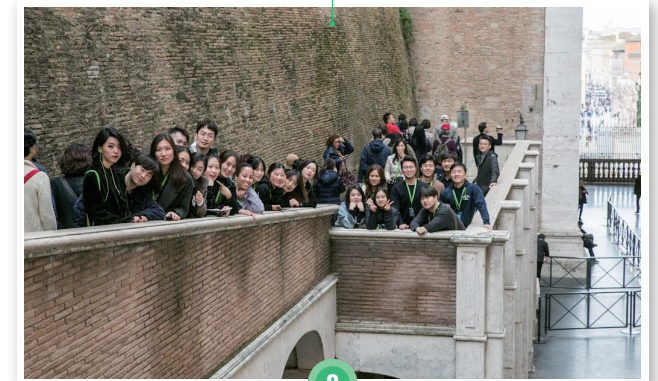


람보르기니 등 현지 기업 방문을 통해
세계최고의 슈퍼카 업체들의 제품 제조에 있어서의 철학과
그들만의 브랜딩 기법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하는 밀라노의 밤

바티칸 투어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에서 다년간 일한 경력이 있는
SDA Bocconi 대학의 교수님들의 강의로,
최근 럭셔리 업계의 트렌드 (디지털화, 밀레니얼화, 아시아화)에
대해 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10번째를 맞이한 EMBA 경영인의 밤

올해로 10번째 전기를 맞은 MBA 가을축제, 경영인의 밤. 올해 처음으로 경영인의 밤에서 MBA 합창단을 선보이며 성공리에 행사를 진행했다. EMBA의 특별한 이야기를 이준현 동문(EMBA 10기)과 나눠 보았다.



‘경영인의 밤’ 소개

경영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님들과 EMBA, SMBA, GMBA 재학생과 동문 원우 가족께서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동문들께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재학생은 서로 간의 우정과 격려를 그리고 나아가 구성원의 화합을 모태로 매년 가을밤에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축제는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MBA 합창단 공연과 경영대학교 교수님 밴드 ‘가락’의 공연을 진행했고, 2부에서는 퀴즈쇼와 EMBA 실행예술클럽 밴드인 ‘엠바소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행사를 처음 기획할 때만 하더라도 연습시간이나 인원수에 대해 걱정했었지만, 원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총 40분의 EMBA, SMBA, GMBA 원우들로 이루어진 MBA 합창단을 구성한 것입니다. 이 구성은 행사를 처음 기획하는 과정에서, 59동에서 학업을 같이하는 EMBA, SMBA, GMBA 원우들 간의 화합의 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처음으로 합창단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우들께서 기존에 경험이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연습할 곳이 협소했던 것 등 그 과정이 쉽지않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우들의 4개월간의 노력으로 ‘오버 더 레인보우’, ‘바람이 불어오는 곳’, ‘아모르 파티’, 세 곡으로 이루어진 좋은 무대를 구성해 주신 순간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도와주신 분에게 전하는 이야기

가장 먼저 홍보위원회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본연의 학업이 아닌,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주셔서 행사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행사를 위해 커뮤니케이션한 다양한 분들과 반년 넘게 준비를 하는 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뒤에서 열렬히 응원해 주신 교수님들과 학교 행정실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EMBA의 특별함

배우고 싶은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서울대 EMBA만의 특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제조업, 서비스, 의학, 공공, IT 등



제10회 EMBA 경영인의 밤 운영진들

졸업생과 재학생의 다양한 분야의 동문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EMBA에서 공부하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원우들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만큼, 저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EMBA를 추천하는 이유

EMBA는 업계에서 오래 일하셨음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할 계기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EMBA가 학문적인 소양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비즈니스의 흐름을 읽는 넓은 시야와 글로벌 안목을 훈련할 수 있는 장소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공부를 모두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막상 오시면 열정만 있다면 일과 학업을 동시에 해낼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원우들과 보내는 2년의 시간은 인생의 정말 가치 있는 일로 다가올 거라 생각하기에, 꼭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이준현 동문
(EMBA 10기)



구성원의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의 비선형관계에 관한 연구: 상사의 근접관찰의 조절효과

The Curvilinear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Creativity: The Moderating Role of Supervisor Close Monitoring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June 2019, Volume 34, Issue 3, pp 377-388)

Jihye Lee, Seokhwa Yun, Soojin Lee, Jung hyun Lee



리더는 구성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성원들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자기효능감과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1. 연구의 배경

구성원들의 창의성이 혁신과 기업의 성공, 지속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많은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창의성이 기업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보니, 많은 학자들이 창의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요인들 중의 하나로 성격, 역량 등 개인의 특성에 학자들이 주목하였다. 개인 특성변수 중의 관심을 받은 개념 중의 하나는 자기효능감(自己效能感, self-efficacy)이다. 자기효능감은 Albert Bandura 교수님께서 개발한 개념으로 특정한 업무 또는 과업을 수행할 역량에 대한 개인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의 역량이 객관적인 지표라면,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지표이다.

자기효능감은 개인들의 동기부여의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로 다양한 행동 및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침이 검증되었다. 개인의 역량이 창의성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특히 자기효능감이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과연 자기효능감이 창의성에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시작하였다. 혹시 지나친 자기효능감은 창의성에 역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2. 연구가설

최근 학자들이 과연 자기효능감이 창의성을 포함한 개인의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지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기존의 연구에서 보여준 것보다 더 복잡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Badura와 Locke에 의하면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역량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 자신의 역량을 더 개발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역량에 대한 과신을 조장하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방법에 대한 시도를 등한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생각과 혁신을 방해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지나친 자기효능감은 과신을 불러오고 과신은 오히려 새로운 생각과 창의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이 단순한 선형관계(linear relationship)가 아닐 수 있고, 비선형관계(curvilinear relationship)를 상정하고 있다. 즉 일정수준의 자기효능감은 창의성에 도움이 되지만, 이를 넘어서는 자기효능감은 오히려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는데,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사이의 비선형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상황론(interactionist perspective)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이나 성과는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이 처한 상황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자기효능감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효과성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조직 내에서 개인이 처한 상황 중에 리더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다양한 리더의 행동 중에 '근접관찰(close monitoring)(흔히 이야기하는 micromanagement 또는 미시적 관리와 유사한 개념)'에 주목하였다. 창의성은 리더들이 구성원들에게 스스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때 발휘가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상황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의 관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및 결과

연구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구성원과 직속상사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자기효능감과 상사의 행동, 즉 상사의 '근접관찰(close monitoring)'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였고, 직속상사는 구성원의 창의성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렇게 설문 응답자를 달리 함으로써, 설문연구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이슈 중에 하나인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를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설문문항은 기존의 연구에서 검증이 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가설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은 비선형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그림 1 참조), 리더의 '근접관찰(close monitoring)'은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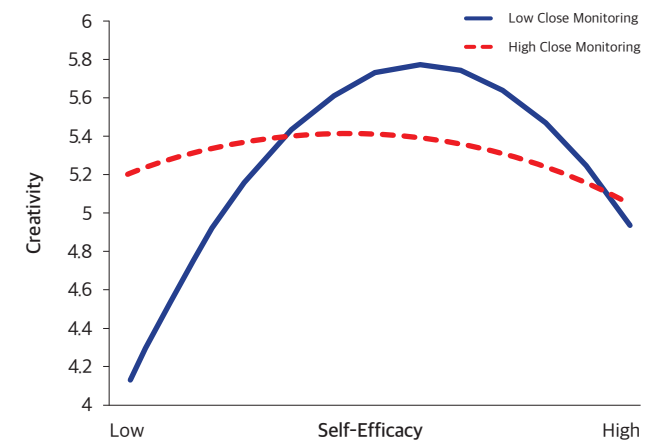
4. 시사점

과유불급(過猶不及) 현상을 사회의 많은 곳에서 목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개인의 자기효능감 또는 자신감에도 적용이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적당한 수준의 자신감은 창의성을 높여주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오히려 창의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구성원이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리더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리더의 언행은 구성원의 자기효능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리더의 말 한마디가 구성원의 사기를 올릴 수도 있고 저하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구성원의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비현실적인 칭찬이나 격려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리더는 구성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성원들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자기효능감과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사의 근접관찰(close monitoring)'이 구성원의 창의성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림 1>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의 관계



<그림 2> 리더의 근접관찰(close monitoring)이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교수 윤석화

전기차 구매에 있어서 심리적 요인 및 행태적 요인의 역할: 한중 전기차 소유자의 비교연구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Factors Affecting Electric Vehicle Adoption and Satisfaction:
A Comparative Study of Early Buyers in China and Korea**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D: Transport and Environment, 76, 1-18.)

Meeja Im, Mee Ryoung Song, Wujin Chu, Jooyoung Park (2019)



여러 국가에서 온실 가스 배출과 미세먼지로 유발되는 공기오염에 대응하여 내연기관차 대신 친환경 전기차를 권장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일정 시점 이후에 불허하는 방침도 내리고 있다. 노르웨이는 2025년, 네덜란드와 인도는 2030년, 프랑스와 영국은 204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를 판매할 수 없게 하였다. 한국과 중국도 전기차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자동차, 버스, 밴 등 연간 20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할 계획이며, 한국은 2022년까지 22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함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중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다수 국가의 주력 산업으로 각국 정부는 전기차 시대에도 그 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에 발맞추어 각국 정부들은 소비자들의 전기차 선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차 구매 동기와 기존 전기차 소유자의 만족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구매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 전기차 사용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들, 그리고 전기차 사용시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적 반응에 대한 심리적 기저를 이해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사용자의 행동을 비교하고 있다. 한중 비교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중국은 한국보다 전기차 생산 및 판매 역사가 더 길다. 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반면, 한국은 2014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고작 3,000대였다. 그리고 2017년부터 정부의 대대적인 판매 장려금 덕분에 수요가 늘기 시작했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의 전기차 소유자를 비교하는 것은 성숙한 시장과 초기단계 시장의 비교라는 점에서 대비가 된다.

이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실제 전기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사용과 관련된 심리 및 행동 요인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에서 전기차 소유자 204명을 조사하였고 한국에서는 전기차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177명의 전기차 소유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소유자는 사용 행태와 만족도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냈다.

우선 사용 행태에서 한국 전기차 소유자는 평균 여행^{trip} 거리가 더 길었고, 더 많은 고속도로 주행을 하였으며, 더 많은 장거리 운행을 하였다. 반면에 중국 전기차 소유자는 더 짧은 거리의 도시 운행을 많이 하였다. 그리고 두 나라의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도 차이를 보였다. 중국 전기차 소비자는 한국 전기차 소비자보다 환경의식이 더 높았고, 환경의식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중국은 수년간 심각한 대기질 문제에 봉착하였는지라 환경이 전기차 구매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중요도 5.83). 반면에 한국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유 중에서 환경의식이 세 번째로 중요하였다(중요도 5.31). 한국 소비자의 경우 전기차를 구매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었다(중요도 6.02). 경제적 요인이라고 하면 저렴한 전기충전비와(낮은 유지비) 구매 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의 규모였다. 실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주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또한, 중국 전기차 운전자들은 자동차가 지위와 명성을 부여한다는 상징성을 한국 운전자들보다 더 중요시하였다(중요도 4.56 대 4.02). 중국 운전자의 경우 전기차가 주는 긍정적이고 “환경을 배려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였다는 것이다.

Table. Reasons for purchasing Electric Vehicles

	Environmental reason	Economic reason	Innovativeness of ELECTRICAL VEHICLE	Reputation and interest from others
Chinese respondents	5.83 (1.04)	5.33 (1.15)	5.35 (1.10)	4.56 (1.44)
Korean respondents	5.31 (1.45)	6.02 (1.32)	5.69 (1.45)	4.02 (1.76)
F-statistic	18.70	25.05	5.39	7.77
(Sig.)	(0.000)	(0.000)	(0.021)	(0.006)

Note : Mean. Figures in parentheses are standard deviations

전기차 이용 만족도에 있어서 한국 소비자가 중국 소비자보다 더 높았다. 한국 소비자의 94%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였고 중국 소비자의 80%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였다. 한국 소비자들은 주요 구매 요인이 운영비 절감이었는데 이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수 있었다. 반면에 환경의식이 주요 구매 요인이었던 중국 소비자는 그 효과를 체감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만족도가 낮았다. 또 다른 이유는 전기차의 전반적인 품질이 한국이 더 우수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결과는 과거 연구(Sun et al. 2017)와 차이점이 있는데 과거 연구에서는 전기차 소비자의 만족도가 1.9점이었는데 이번 연구는 만족도가 3.93점이었다. 즉, 연구가 2년 뒤에 이루어진 본 연구에서 만족도가 많이 향상되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기차 품질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의 전기차 소유자는 주행거리의 한계 및 배터리 충전의 어려움을 가장 불만족한 이유로 들었다. 이 연구의 시사점으로 이제부터는 정부의 정책이 구매비용 보조에서 사용시 운영비용 절감 및 불편 해소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정책이

구매비용 보조에서

사용시 운영비용 절감 및

불편 해소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교수.주우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현재 주가가 미래 이익을 반영하는 정도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nd the Informativeness of Stock Prices about Future Earnings

(2019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Jong-Hag Choi, Sunhwa Choi, Linda A. Myers, D. Ziebart



1. 연구의 배경

기업의 가치는 해당 기업의 주식 가격(주가)으로 표현된다. 특정 기업의 주가는 현재와 미래 이익에 의해 결정되는 해당 기업의 가치에 대한 기대값이다. 주주 및 기타 투자자들은 여러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서 기업들의 미래 이익을 예측하고, 그 예측치를 반영해 주가가 형성된다. 따라서 미래 이익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예측된 미래 이익 정보가 현재 주가에 더 많이 반영될 것이다. 이를 '주가가 미래 이익에 반응하는 정도'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FERC라고 표현한다. 만약 미래 이익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면 현재의 주가는 현재의 이익만을 반영하여 형성될 것이므로, 주가가

미래 이익에 반응하는 정도를 이용하여 이익 정보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지를 유추할 수 있다. 재무분석가 financial analyst들은 이 과정에 사용되는 미래 이익 정보를 예측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주나 투자자들은 재무분석가가 발표하는 이익예측치 이외에도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미래 이익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노력한다. 보다 정확히 미래 이익을 예측할 수 있다면 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제표가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포함한 풍부한 정보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들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2. 무엇을 연구했나?

DeFranco, Kothari, and Verdi(2011) 등 재무회계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서로 다른 기업들의 이익이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을 수치화하여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만약 서로 다른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높은 비교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자들은 이들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른 기업들의 재무제표와 좀 더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정확한 미래 이익의 예측이 가능할 것이고, 그에 따라 예측된 미래 이익은 현재 주가에 더 많이 반영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실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발견을 뒷받침하는 후속 연구 주제로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주가의 동조성 stock price synchronicity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많다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다른 기업들의 주가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반대로 특정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주식시장 전체의 주가 움직임에 동조하여 유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투자자가 사용하는 정보의 양이나 질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주가의 동조성을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3. 무엇을 발견했나?

본 연구의 발견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 이익이 현재의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가 커졌다. 이 발견은 투자자들이 미래의 이익을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의사결정에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FERC 뿐만 아니라 현재 주가가 현재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도도 향상되었다. 둘째, 미래 이익이 현재 주가에 반영하는 정도와 이익의 동조성에 대한 분석 결과, 비교가능성이 높다면 개별 기업에 대한 이익 정보(주식시장 전체나 산업에 대한 이익 정보 보다는)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가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가 증가하고, 동시에 주가의 동조성은 약화되었다. 이는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높을 때 투자자들이 개별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특정 기업의 미래 이익은 산업 전체의 이익 industry-wide earnings과 개별 기업에 고유한 이익 firm-specific earning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교가능성이 높다면 재무분석가들의 이익 예측치의 정확성이 향상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산업 전체의 이익에 대한 예측치의 정확성은 변하지 않았지만 개별 기업에 고유한 이익에 대한 예측치의 정확성은 향상되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이 재무제표에



규제기관은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기업들도 보다 비교가능성이 높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포함된 정보를 이용해 해당 기업의 미래 이익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재무분석가들이 이익예측치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된 것으로 보면, 재무분석가의 도움 없이도 투자자들은 개인적으로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볼 수 있다. 즉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재무분석가들과 개별 투자자 모두에게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며, 개별 투자자들도 재무제표를 분석할 능력을 일부나마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 연구의 공헌점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재무분석가 및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투자자 집단들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거의 없었다.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되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측정된 비교가능성 수치를 이용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재무제표가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보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규제기관은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이며 기업들도 보다 비교가능성이 높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투자자들도 재무분석가들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해석하는 방법을 더 배워서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이용해야 할 것이다.



교수 최중학

SNU Sketch,

1

학회제



9월 18일에 개최하여 학회 간 교류의 활성화와 더불어,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회 문화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을 마련했다. 반 공동체를 지탱하고, 경영대 학생사회의 주된 공론 형성의 역할을 하는 경영대학 4개 반의 학회들이 참가했다. 이번 학회제는 ‘경영실패 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를 공동 주제로 각 학회가 연구하여 발표하고, 김상훈 교수, 김준범 교수, 신재욱 동문(경영 92), 유병길 동문(경영 91)의 조언과 심사를 직접 받는 뜻 깊은 행사로 진행됐다.

4

진로설계멘토링

지난 10월 31일, 다양한 학번과 진로의 선배를 초청하여 관련 진로와 업계 현황과 인생 전반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진로설계멘토링’을 개최했다. 이번 진로설계멘토링은 총 9개의 진로 분야로 진행됐고, 진로별 연사는 아래와 같다.

분야	참여 동문
금융 일반	보험설계원장 강호 동문(경영76)
금융 사모펀드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백병훈 동문(경영01)
대기업	SK Telecom 이재광 동문(경영89)
법조계	법무법인 태평양 구도형 동문(경영06)
스타트업	로켓펀치 조민희 동문(경영02)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최기림 동문(경영00)
정부기관	(전)여성가족부 차관 박승주 동문(경영72)
컨설팅	Boston Consulting Group 송미선 동문(경영95)
회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권지원 동문(경영88)

2

기업탐방



지난 9월 20일, ‘현대카드’ 본사에서 2019년도 제2차 기업탐방을 진행했다. 25명의 경영대학 학생들이 참여하여 현대카드의 근무 환경과 카드 제작 과정을 견학하고 현대카드의 기업 철학과 활동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4일에는 핀테크 기업 어니스트펀드를 27명의 경영대학 학생들이 참여하여 핀테크 산업과 어니스트펀드, 관련 진로에 대한 관련을 습득하고 사무실 투어를 진행했다.

5

작은 강연회

학부생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작은 강연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세부전공을 처음 접해보는 저학년부터 새로운 진로를 찾고자 하는 고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학부생들은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세부 전공의 기초부터 구체적인 사항까지 폭넓게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진행하고 있다.

일시	분야	참여 동문
9월 9일	컨설팅	T-plus 변동범 동문 (경영 91)
10월 10일	회계	한국 공인회계사회 정준희 동문 (경영 89)
11월 6일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조민식 동문(경영 85)

3

제2회 상과대학 공동 체육대회



지난 9월 27일,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총동창회 주관으로 제2회 경영대학-경제학부 공동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2018년의 첫 행사를 이어 개최된 이번 행사는 경영대학과 경제학부 재학생들과 상과대학 총동창회 동문들이 참석하였으며 줄다리기, 이어 달리기, 축구, 농구 등의 종목들을 거루며 상호 유대감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

6

CBAM 2기

대학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학부생 강연자가 다른 학부생들에게 전달하는 CBA Mentoring, CBAM의 2기 강연이 11월 둘째 주, 3일에 거쳐 진행됐다. 이번 강연은 이소연 학생(경영 14)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시각 자료의 제작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토샵 프로그램 활용 기술을 23명의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공유했다.

7

BEST Symposium 개최



지난 11월 7일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BEST Symposium을 개최했다. 2011년에 체결된 BEST Alliance의 일환으로 매해 서울대학교, 일본 히토츠바시대학교 ICS, 중국 북경대학교를 순회하며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인데, 올해는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각국의 패널들과 함께 공동의 회의 의제인 Doing Business in Asia 2020 개최와 행사 진행 내용, BEST Alliance Advisory Board 추가 의견 제시 및 MBA 복수학위와 교환학생 현황 등을 논의했다. 회의 종료 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신재용 교수는 “The Effect of CEO-Employee Pay Disparity on Firm Performance: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북경대 Jack Ting-Ju Chiang 교수는 “Bully as a Reaction of Perfectionistic Leader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Leader Perfectionism, Perceived Control, and Subordinate Feedback Seeking on Abusive Supervision” 논문을 발표하며 심포지엄이 마무리됐다.

MBA 소식

2019 G,SMBA 오리엔테이션 개최



8월 7일(수)부터 8월 8일(목)까지 경기도 곤지암에서 개최된 오리엔테이션에는 2019학년도 G,SMBA 과정 신입생 60명이 참석했다. 1박 2일로 진행된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 1일 차 일정을 통해 신입생들은 다양한 팀빌딩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하며, 새 학기를 앞두고 동고동락하게 될 동기들과 함께 교류하고 단결력과 협동심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일 차에는 주임교수들이 Code of Conduct를 진행하며 재학기간 중 경영전문대학원 학생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안내하고, MBA과정의 전반적인 안내를 진행하며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Doing Business in Korea 개최



매년 8월경 실시되는 ‘Doing Business in Korea(약칭 DBiK)’는 서울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해외 파트너대학 MBA학생 초청주간이다. 이번 DBiK 프로그램은 8월 26일(월)부터 8월 30일(금)까지 5일간 실시됐으며, 경영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포함하여 싱가포르국립대학, 토론토대학 등 해외 우수대학의 MBA 학생 총 41명이 참여했다. 방문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교수진의 다채로운 강의를 수강했고, 쌍용모터스, LG사이언스파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탐방을 통해 한국 경영 실무환경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학생들은 올해 DBiK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대학교 MBA 학생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심도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MBA 소식

Doing Business in Asia 개최



지난 8월 5일부터 17일까지 약 2주간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부가 공동 지원하는 단기연수 프로그램 'Doing Business in Asia(약칭 DBiA)'가 진행됐다. 이번 하계 DBiA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와 베이징대학교, 히토츠바시대학교의 MBA 및 석사 학생들 30명을 대상으로 공동 주관했다. 특히 8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한국 세션이 진행됐다. 한국 시장의 특색을 학습하고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진의 강의와 아모레퍼시픽 기업탐방을 했고, 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DMZ 투어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동북아 3개국 경영 환경을 경험하며 다양한 문화의 학생들과 함께 소통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참가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참가 후기

DBiA를 통해 '경영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히다

한유미(석사 18)

다양한 방면으로 각 국가의 문화와 비즈니스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해 보는 기회였습니다. 아쉽게도 일본 모듈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서울과 베이징 모듈에서 3국의 학생들과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언어를 배운 것은 물론, 졸업 후 진로 선택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다양한 시야로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하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영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자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운영 관리 석사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관련 산업 내에서의 진로만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DBiA를 통해 재무관리, 인사관리 등 다양한 경영 분야에 대한 저의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고, ICS와 Guanghua 학생들로부터 이러한 분야로의 성장을 응원받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제가 좋아하던 분야로의 MBA만을 쫓지 않고 다양한 시각에서 고민해보고 도전해보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안정적인 서울의 직장만을 생각해 왔던 저에게 중국의 베이징 방문은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중국 문화와 기업 환경을 보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해외에서 직업을 가져보고 싶다는 도전적인 꿈도 갖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진로나 세상을 보는 시야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EMBA 소식

글로벌 비즈니스 스쿨에서 인사이트를 찾다



- EMBA 하계 해외현장학습(International Field Study) -

여름 방학을 맞아 지난 7월 EMBA 재학생들이 해외현장학습(International Field Study, 이하 EMBA IFS)을 다녀왔다. EMBA IFS는 재학생들이 해외 우수 대학을 방문하여 현지 대학 교수진의 강의를 듣고 해당지역 기업 현황과 실물경제를 체험하며 해당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과 주요 기업에 대해 심층학습하는 연수프로그램으로서 하계, 동계 방학 중 7박 8일여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지난 하계 IFS는 UCLA 대학이 새로이 추가되어 EMBA 보직교수진 인솔 하에 미국 동부, 서부 및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총 5개 대학에서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각국을 대표하는 최정상의 비즈니스 스쿨을 방문하여 해당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에 관한 심도 있는 강의를 듣고, 현지 기업들을 탐방하며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남겼고, 사후 참가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5개 국가가 평균 4.37점(5점 척도)을 기록하며 EMBA IFS 콘텐츠와 운영방식 전반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더불어 동료 원우들과 일주일간 미주, 유럽지역의 문화와 경영 현장을 함께 체험하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준 학교와 동료들에 대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감사함을 전했다.

국내 주요 기업에서 핵심 리더로 현직에 있는 EMBA 재학생들의 국제화 감각을 향상시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는 EMBA IFS 프로그램은 EMBA 국제화 프로그램의 정수이자 학위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2학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방문 국가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감사함과 원우애로 수놓은 EMBA 송년의 밤



- EMBA 송년회 & 사은회 -

EMBA 송년회가 지난 12월 14일 르 메르디앙 호텔 다빈치홀에서 개최됐다. 종강과 함께 한 해 교과과정을 모두 마무리한 재학생들이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기획하여 사은회를 겸해 열렸던 이번 송년회는 가을축제를 기점으로 결성된 EMBA 합창단의 무대가 함께 어우러져 EMBA 학생들과 교수진 모두가 주인공으로 기억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교수진을 대표해서 무대에 올라 감사패를 받은 분들 외에도 홀에 자리 잡은 모든 교수님들 한 분 한 분께 EMBA 재학생이 감사패와 꽃, 포옹으로 감사인사를 전하는 모습에서 진정 어린 사제의 정과 학생들의 사려 깊은 배려가 드러나 행사장을 온기로 가득 채웠다.

저녁식사에 이어진 2부 행사의 시상식은 EMBA 학생들의 개성과 원우애를 드러낸 하이라이트였으며, 팝페라 공연팀 예보체의 흥겨운 무대로 피날레를 장식한 송년회는 동고동락한 원우들과 교수진이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며 2020년 새해에 다시 함께 달릴 것을 기약하면서 막을 내렸다.

CFO 소식

CFO 총동문회 신임 회장단(제8대) 명단 및
2020년 주요 일정

직책	성명	소속/직위	기수
회장	남영찬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	12
부회장	박종열	동성코퍼레이션 대표	
사무총장	이형백	(주)이스트게임즈 대표	
감사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월	일	내용
1	14(화)	2020 정기 총회 및 신년 교례
3	17(화)	SNU CFO 1차 정기 포럼
4	7(화)	제8대 집행부 회장단 상반기 모임
	25(토)	춘계 산행
6	16(화)	SNU CFO 2차 정기 포럼
7	7(화)	제8대 집행부 사무총장단 모임
9	12(토)	제10회 한마음 대회(골프 & 등산)
	22(화)	SNU CFO 3차 정기포럼
10	20(화)	제8대 집행부 회장단 하반기 모임
11	17(화)	SNU CFO 4차 정기 포럼

동문 리더스클럽 소식

‘SNU BIZ 人 을지로’ 개최



10월 25일 강남 포포인츠 호텔에서 진행된 ‘SNU BIZ 人 강남’에서는 화제의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흥택 작가를 모시고, 조직의 신입 사원이자 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주요 소비자인 90년대생의 세대적 특징을 이해하고 차이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영대학 동문들의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총 40여명이 참석해 식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경영대학 동문들의 오피스타운을 직접 찾아가서 진행되는 ‘SNU BIZ 人’ 특강은 바쁜 일상 속에서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경영대학 동문들이 한 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 알찬 친목의 장이 되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SNU BIZ 人’ 시리즈는 내년 상반기에도 흥미로운 특강 주제를 가지고 동문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벤처경영기업가센터

경영대학 동문 선배 만남



벤처경영기업가센터는 지난 7월 2일 “2019 벤처스 클럽(Ventures' Club) 정기 모임”을 진행했다. 벤처스 클럽(Ventures' Club)은 2017년부터 시작된 경영대학 동문과 서울대학교 후배 창업자를 연결하는 모임으로 재능기부를 통해 후배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 1월 현재 약 75명의 법조계, 산업계, 투자계, 학계 동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창업팀들의 창업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 선후배가 연결되고 있다. 이 날 행사는 서울대학교에서 모인 창업팀 9팀이 참석하여 각자의 창업 아이템을 선배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박철순 벤처경영기업가센터장은 혁신 역량이 필요한 현재의 경영환경 그리고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와 스타트업의

역할과 이 모두를 위한 경영대학의 역할에 대해 동문들과 학생들에게 뜻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행사는 약 3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셔서 뜻 깊은 자리를 빛내 주었다. 서울대 경영대학 벤처경영기업가센터는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벤처스 클럽을 통해 선후배 창업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xecutive MBA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모집인원	120명					
과정구분	2년제 주말 MBA (정규 석사학위 과정)					
과정특징	- 기업 및 주요기관 임원급의 경영능력 강화를 통해 차세대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2년제 주말 MBA - 소속기업(기관)의 추천 및 교육비 지원이 필수사항으로서 조직 내 현직 경영진 또는 경영진으로 양성할 핵심인재로 재학생 구성					
수업시간	금요일 오후 15:00 ~ 19:00 / 토요일 오전 09:00 ~ 13:00 / 토요일 오후 14:00 ~ 18:00					
학기일정	1학기(3월 ~ 6월) + 2학기(8월 ~ 12월)					
지원자격	학사학위 이상 또는 법령에서 인정하는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					
	본 대학원과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한 기업 및 기관 임직원으로서 소속기업(기관)의 추천 및 학비지원 필수 ※ 계약학과 위탁교육 협약체결 간소화 프로세스 별도 문의					
	실무경력 7년 이상 - 현 소속기관 재직 9개월 이상 반드시 포함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업체 임원의 경우 경력 3년 이상 유효한 공인영어 성적 제출 (최소 기준점수 없음)					
전형절차	온라인 원서접수 2020. 9 ~ 10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1월 초	» 면접 및 구술고사 2020. 11. 12(목) 예정	» 합격자 발표 11월 말	» 등록 12월 초	» 입학 2021. 3월
입학문의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행정실 ☎ (02)880-2521 ✉ emba@snu.ac.kr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SNU NEWS [전공별 소식]

회계학



2019학년도 2학기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장학생 선발

지난 10월 22일 소담마루에서 2019학년도 2학기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장학생 선발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안전회계법인 한홍석 부대표, 동기호 회계사를 비롯하여 회계학 전공교수, 장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전회계법인 후원으로 매 학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장학생으로 선정된 3인에게는 각 2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장학생 명단: 남희정(경영15), 백지훈(경제15), 유민지(경영15))

마케팅



주우진 교수,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연구부분 수상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창의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탁월한 연구실적을 낸 10명의 교수를 ‘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연구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 경영대학에서는 주우진 교수가 선정됐다. 주우진 교수는 유통 및 자동차산업 연구를 수행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정보경제학 이론을 유통학에 적용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학술적 업적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공정거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산업 분야에서는 기업 간 신뢰 연구로 2010년 미국 국제경영학회의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으며 2003년에는 미국 마케팅교육저널에서 아시아-태평양 연구업적 2위 교수가 되기도 했다.

2019학년도 1학기 박사논문 현황

전공 : 인사조직

성명	지도교수	논문제목
양유하	최진남	Social Comparison Process in Individual Creativity: Effect of Upward Social Comparison within Teams Through Affective and Cognitive Process with the Role of Context

전공 : 재무금융

성명	지도교수	논문제목
강민	채준	Three Essays on Trading Volume

전공 : 전략/국제경영

성명	지도교수	논문제목
전영신	박남규	Speed of Internationalization, the Knowledge Link and Effects of Creativity

전공 : 마케팅

성명	지도교수	논문제목
한혜주	이경미	럭셔리 브랜드의 기능적 소비가 지위 인식에 미치는 영향(Your Dream Is My Reality: How Functional Consumption of Luxury Brands Becomes a Status Symbol)

전공 : 생산관리

성명	지도교수	논문제목
손지윤	박상욱	제품개발 단계에서의 산업디자인 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재호	양홍석	혁신 제약요인이 기업의 혁신 성과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공 : 재무금융

성명	지도교수	논문제목
김민직	조재호	자산가격결정이론에 관한 연구 - 주식프리미엄 의문현상과 비대칭적 변동성에 대하여

2019학년도 2학기 석사논문 현황

전공 : 경영정보

성명	지도교수	논문제목
류수희	유병준	Two Approaches to Estimate Customer Value for Churn Prediction: by Their Consuming Contents Behavior
염경민	유병준	Effects of "Wait-or-Pay" Pricing Strategy on Serialized Digital Content Services
이규연	장정주	A Study of Message Framing and Content Popularity on Online Video Reviews: An Empirical Analysis on YouTube Contents
최예송	유병준	A Study of Positively Biased Reviews in a Reciprocal System: The Differences in the Writing and Perception of Reviews

전공 : 마케팅

성명	지도교수	논문제목
고민정	이경미	Mixed Use of Less known and Well-Known Luxury Brands Increases Perceived Social Status
김세연	이유재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실패 발생 상황에서의 소비자의 자발적인 회복에 대한 연구(서비스 실패의 과거 경험 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세준	송인성	경험재 제품의 온라인 리뷰 유용성 결정 요인 분석
김시은	이유재	The Effects of AI Recommendation and Consumption Goal on Willingness to Recommend: Focusing on Perceived Unbiasedness of Product Information
김주연	김상훈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서비스 직원 유형이 보복 욕구에 미치는 영향

성명	지도교수	논문제목
김주희	김상훈	The Effect of Simplicity of High-tech Product Design and Brand Awareness on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사르코비치 줄리타	김상훈	Roles of Author's Name, Regulatory Focus and Author Information in Novel Choice
송건우	이유재	Physical versus Social: The Effect of Social Distance on the Relation ship between Physical and Social Density
송철호	송인성	Modelling search and choice decisions under limited product information with unstructured data
셴 카이션	이경미	The Effect of State Narcissism on New Product Adoption
안병국	박기완	Optimizing Internal Marketing Strategy: Identifying Organizational Factors Leading to Enhanced Job Satisfaction
윤성인	주우진	Factors Affecting Electric Vehicle Adoption Intention: A Comparative Study on Potential Consumers in California and Korea
이현경	김상훈	리뷰가 비디오 게임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계학습을 적용한 트위터 데이터의 활용
장지혜	이유재	Awe Amplifies the Savoring of Present Moment and Increases Consumption Enjoyment
전재현	김병도	eWOM(온라인 구전)이 제품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 구전 채널 특성을 중심으로
전정하	박기완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Polarized Review Rating: The Role of Consumption Goal and Self-Construal
홍나래	주우진	The use of Dispreferred Marker to overcome Confirmation Bias in Online Word-of-Mouth communication

전공 : 생산관리

성명	지도교수	논문제목
김성빈	오정석	The Measurement of Efficiency of Asia-Pacific Airports: An Application of Network Data Envelopment Analysis
백진영	오정석	Relationship of ISO 19001 and ISO 14001 Certification with Firm's Financial Performance in Korea
한유미	양홍석	Optimal inventory of Seoul bike-sharing system with static repositioning

전공 : 인사조직

성명	지도교수	논문제목
김나영	이경목	구성원의 행복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김탄	이경목	기업 경쟁우위 전략으로서의 기업사회책임
이동환	윤석화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Empowering Leadership on Subordinates' Creative Performance: Moderating role of Leader's Self-Concern or Other-Orientation.
이선민	박희준	노동조합과 무노조기업 노사협의회의 임금교섭 비교 연구 - 무노조기업 노사협의회의 임금교섭 방식 차이와 협력적 노사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승주	강성춘	국내 애널리스트 이탈 및 이동에 관한 연구: 결정 요인과 이동 방향성을 중심으로
이재욱	김성수	Should HR be Competitive or Cooperative to Elicit Creativity? The Effects of HR Systems on the Employee's Distinct Types of Creativity through Knowledge Management Behaviors

전공 : 재무금융

성명	지도교수	논문제목
김승재	김정욱	복권형 주식(Lottery-like Stocks): mispricing인가 risk-pricing인가?
문예진	김정욱	Contrast Effects in Korean Financial Market
박나혜	고봉찬	Intraday Momentum in Korea
박동연	고봉찬	추가 모멘텀 전략의 확장: 지속성 추가의 효과
백지현	이관휘	무형수익률에 따른 이익잉여금/시가와 장부가/시가의 주식수익률 예측력 비교에 관한 연구
서승우	최혁	현금전환주기의 주식 기대수익률에 대한 영향: 시계열 및 횡단면 분석을 중심으로

서연아	최동범	저금리시대, 금리가 국내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신희준	고봉찬	Corporate Governance, Earnings Management and Firm Value: Focused on Ownership Structure
에르덴다와	고봉찬	The empirical study of QMJ in Korean stock market
오영길	김정욱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아근/일종수익률의 지속 및 반전 현상에 관한 연구
이상현	조재호	한국주식시장의 Left-tail 모멘텀에 관한 연구
이예찬	고봉찬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식 분할의 신호 효과에 관한 연구
이종화	고봉찬	Investor Attention- Price and Behavior Regarding IPO: Evidence from Korean IPOs
이지원	이종섭	Strategic Default and Distress Risk Puzzle: Evidence from Korea
이희승	고봉찬	장, 단기 가격오차 요인 모형 - 국내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정찬욱	박소정	실손의료보험의 의료기관별 도덕적해이
제민우	최혁	한국 주식 시장에서 평균 왜도와 시장 수익률 간의 관계
한재희	채준	Winning Probability: 주식시장, CD수익률과 비교를 통한 개별주식 승리 확률 분석

전공 : 전략국제경영

성명	지도교수	논문제목
강미덥	박남규	The Effect of CEO's Individual Creativity on M&A Target Evaluation and Acquisition Premium
강우형	박남규	The impact of Firm Creativity on M&A performance
고유림	박남규	Why Did They Buy That? The Propensity of Platform Businesses to Select Unrelated Targets
김수현	이동기	Netflix's Winning Strategies in South Korea and Changes in South Korean OTT Industry
명준호	박철순	노키아의 유산(부채·후발주자의 기술추격 사례연구)
서상훈	이동기	The Impact of Family Ownership on R&D investment: the Moderating Role of foreign Ownership and Outside Directors
신재원	박남규	Don't Put Your Eggs in One Basket: The Effects of Alliance Portfolio Diversity and Core Alliance Type Concentration on Alliance Performance in the PC Game Industry
양수이	이동기	Effects of Internationalization and Prouct Diversification Strategies on SME Innovation
이지은	이동기	설빙의 해외진출 전략 사례연구
정의영	송재용	Who Goes More Global?: Effects of Disparate Ownership on Corporate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조소영	이동기	Does R&D Intensity Influen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Korea?: the Moderating Role of Board Independence
채아름이	이동기	우버의 해외 진출 사례 연구: 제도적 환경 특성 및 대응방법과 현지화를 중심으로

전공 : 회계학

성명	지도교수	논문제목
김근영	이용규	Diversification and Cash Flow Management: Relationship between diversification and firm's tendency to inflate cash from operation
김민석	황인이	Foreign Ownership and Managerial Short-termism: Cost-Stickiness Model Approach
김병우	안태식	Business Expansion and Cost Stickiness
김성효	백복현	When a Central Bank Becomes a Market Player: An Examination of the Swiss National Bank's Equity Holdings in the U.S. Market
김연수	이용규	Earnings Downside Risk and Earnings Management
김엘레나	이용규	Accounting Conservatism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박다윗	신재용	Why do Foreign Private Issuers File Annual Reports Late?
박소희	신재용	Approved Rent Extraction?: Evidence from Executives' Pay Cap in Korea
윤여상	황인이	The Impact of the Trade Policy Changes on Investor Uncertainty and Earnings Quality

교수소식



● 박남규 교수, Best Paper Finalist로 선정

Alliance Portfolio Complexity and Order-of-Entry Effects in International Alliance Formations 논문이 The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nual Meeting에서 Best Paper Finalist로 선정됐다.

● 박진수 교수, 2019 세종도서 학술부분 선정

경영대학 1학년 교양 필수 교재인 파이썬 교재 '바로 쓰는 파이썬'이 2019 세종도서 학술부분에 선정됐다.

● 송재용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선출

송재용 교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정책학부 정회원으로 선출되어 1월 14일 신년 모임에서 정회원으로 공식 임명됐다.

● 이관휘 교수, NH Investment and Securities Co., Ltd. Outstanding Paper Award 수상

2019년 12월 7일 조선회에서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열린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ia-Pacific Financial Markets 2019>학회에서 “NH Investment and Securities Co., Ltd. Outstanding Paper Award”를 수상했다.

● 이유재 교수, 2019 고객서비스 학술상 수상

2019년 10월 한국고객센터서비스학회로부터 학술저술분야의 우수한 업적을 인정받아 고객서비스 학술상을 받았다.



2019년 7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게재된 (Publish) 논문 리스트입니다.

● 김우진 교수(외 Ko Young Kyung, Wang Shu-Feng)

Debt Restructuring Through Equity Issues 논문이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에 게재됐다.

● 박기완 교수(외 Minjung Roh)

Adoption of O2O food delivery services in South Korea: The moderating role of moral obligation in meal preparation 논문이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에 게재됐다.

● 박남규 교수(외 Monica Youngshin Chun, Jeonghwan Lee)

How Do Mobility Direction and Human Assets of Mobile Engineers Affect Joint Knowledge Creation after M&As? 논문이 Sustainability에 게재됐다.

● 박진수 교수(외 Hamirahanim Abdul Rahman, Jihae Suh, Hazami Hussin)

A Study of Integrative Bargaining Model with Argumentation-Based Negotiation 논문이 Sustainability에 게재됐다.

● 석승훈 교수(외 Jimin Hong)

The efficiency effects of life settlement on the life insurance market 논문이 Pacific-Basin Finance Journal에 게재됐다.

● 이관휘 교수(외 Shu-Feng Wang)

Time-Varying Aggregate Short-Selling in Korea 논문이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에 게재됐다.

● 이유재 교수(외 Yongju Kwon)

The Effect of Perceived Economic Mobility on Customer Aggression toward Service Employees: A darker aspect of customer behavior 논문이 Psychology & Marketing에 게재됐다.

● 이유재 교수(외 Yookyung Park)

When Free Gifts Hurt the Promoted Product: The influence of product-gift fit on activating persuasion knowledge and devaluating the promoted product 논문이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에 게재됐다.

● 임재현 교수(외 Ho-Yin Mak, Seung Jae Park)

Money well spent? Operations, Mainstreaming, and Fairness of Fair trade 논문이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에 게재됐다.

● 임재현 교수(외 Karthik Murali, Nicholas C. Petruzzi)

The Effects of Ecolabels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on Green Product Development 논문이 Manufacturing &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에 게재됐다.

● 주우진 교수(외 Meeja Im, Mee Ryoung Song, Jooyoung Park)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Factors Affecting Electric Vehicle Adoption and Satisfaction: A Comparative Study of Early Adopters in China and Korea 논문이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D에 게재됐다.

● 채준 교수(외 Bonha Koo, Hyungjoo Kim)

Does Internet Search Volume Predict Market Returns and Investors' Trading Behavior? 논문이 Journal of Behavioral Finance에 게재됐다.

● 채준 교수(외 Bokyoung Park, Jungsoo Park)

Non-interest income and bank performance during the financial crisis 논문이 Applied Economics Letters에 게재됐다.

● 최진남 교수(외 Sun Young Sung)

Effects of Diversity on Knowledge Sharing and Creativity of Work Teams: Status Differential Among Members as a Facilitator 논문이 Human Performance에 게재됐다.

● 최진남 교수(외 Yidong Tu, Xinxin Lu, Wei Guo)

Ethical Leadership and Team-Level Creativity: Mediation of Psychological Safety Climate and Moderation of Supervisor Support for Creativity 논문이 Journal of Business Ethics에 게재됐다.

● 최진남 교수(외 Jee Young Seong)

Is Person–Organization Fit Beneficial for Employee Creativity? Moderating Roles of Leader–Member and Team–Member Exchange Quality 논문이 Human Performance에 게재됐다.

● 최진남 교수(외 Kim, Hyunjee Hannah, Butt, Arif Nazir)

Reflected self-efficacy and creativity: The power of being recognized by others toward individual creative performance 논문이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에 게재됐다.

● 최진남 교수(외 Choi, Se Yeon, Chung, Goo Hyeok)

Why are we having this innovation? Employee attributions of innovation and implementation behavior 논문이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에 게재됐다.

● 최진남 교수(외 Muhammad Abdur Rahman Malik, Arif Nazir Butt)

Distinct Effects of Intrinsic Motivation and Extrinsic Rewards on Radical and Incremental Creativity: The Moderating Role of Goal Orientations 논문이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에 게재됐다.

동문소식

경영학부 동문

- ▲ **임진혁**(학사 71) 제8대 울산발전연구원장 취임
- ▲ **정은보**(학사 80)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한국측 대표자 임명
- ▲ **우범기**(학사 82) 전라북도 정부부지사 임명
- ▲ **이영민**(학사 83)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취임
- ▲ **이용수**(학사 83) 경기도 공정국장 선임
- ▲ **김규현**(학사 84)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임명
- ▲ **모과균**(학사 84) 케이디인베스트먼트 대표 선임
- ▲ **김수욱**(학사 85) 아시아경제 부설 국가자산관리연구원 초대 원장 취임
- ▲ **정인섭**(학사 89) 한화에너지 신임 대표이사 임명
- ▲ **박성철**(학사 74) 보라티알 대표이사 선임
- ▲ **류두형**(학사 83) 한화솔루션 첨단소재부문 대표이사 취임
- ▲ **위정현**(학사 83) 한국게임학회 학회장 연임

MBA 동문



2019년 3차 MBA동문오찬특강 실시

2019년 제3차 MBA동문오찬특강을 실시했다. 동문오찬특강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의 E,G,SMBA 동문들이 졸업한 뒤에도 오찬을 같이 하며 서울대 교수진의 특강을 수강하는 프로그램이다. 제3차 동문오찬특강은 2019년 9월 3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진행됐다. 특강 교수진으로는 서울대 경영대학 황인이 교수가 “들어보는 보상체계”를 주제로 강의했다. 바쁘게 지나가는 일주일 중 잠시 학우들과 재회하는 오찬 시간만큼은, 동문들도 학생 시절로 돌아와 완전한 가을날을 만끽하며 강의를 수강했고, 선후배들 간에도 적극적으로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나누었다.

EMBA 동문

2020년 신입 회장 추대

2019년 12월 4일 EMBA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전병영(EMBA 4기, 청우통상 대표) 동문이 8대 동문회장으로 추대됐다. 전병영 신입 회장은 2020년 EMBA 동문회를 이끌어 나갈 포부를 밝히며, 동문회의 100년을 내다보며 주춧돌을 놓는 마음으로 동문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9년 자랑스러운 동문상

EMBA 총동문회에서는 매년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동문을 1명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다. 2019년 영예의 수상자는 EMBA 3기 김덕상(싸토리우스코리아 바이오텍(주) 대표)동문으로 2005년 독일 Sartorius 그룹과 함께 싸토리우스코리아 바이오텍을 설립한 후, 국내외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및 생산을

리드하고 있다. 한편,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상임이사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고 질병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바이오마스터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등 국내 바이오 인재 교육을 후원하여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고, 또한, 5, 6대 EMBA 총동문회장으로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했다.

EMBA Experts 그룹 출범

EMBA 총동문회에서는 동문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동문회의 역량을 확대하고자 스터디 소모임인 “EMBA Experts”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Experts 그룹은 전략/마케팅, 금융, HR, IT의 4개 분야로 구성됐고, 각 부문에 그룹장을 선임하고 19년 하반기에 두 차례의 모임을 가졌다. 네이버카페(SNU EMBA Experts Agora)를 개설하여 각 Experts 그룹의 정보와 지식을 축적 및 공유하고 있다.

<경영대학 동문 소식을 기다립니다>

경영대학 뉴스레터에 게재할 동기회 소식 및 동문 소식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2.880.6923 FAX 02.877.0513 문의 E-MAIL freesia1226@snu.ac.kr 담당자 유희라 *동문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경영대학 발전기금 소식

Wall of Honer ‘S-Honors Club’ 신규 선정

참나무 (1억원 이상)	(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기업연구재단
소나무 (1천만원 ~)	노원종
	박세원(학현사)
	박소정(학사 98, 석사 02)
	AMP 87기
	CFO 28기

기부자 예우

- 경영대학 S-Honors Club

5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네티나무 Club (Zelkova: 관용 또는 사회적 책임)	참나무 Club (Oak: 용기와 도전)	소나무 Club (Pine: 창의)	

- 기부자 명예헌정 및 예우

구분	5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대학본부 명예의 전당 등재	○	○	○	○
경영대학 Wall of Honor 명패	○	○	○	○
기금명칭 부여	○	○	○	
총장 공관 만찬 초청	○			
교내 주요행사 초청	○	○	○	
전시회·공연 초청	○	○	○	○
기부기업(개인)명을 딴 토론실명 헌정 * 토론실 소진 시 강의실내 기부자벽(명칭미정) 명패 게시 (AMP동문의 경우, Wall of Fame 게시로 대체 가능)			○	
기부기업(개인)명을 딴 강의실명 헌정	○	○		
경영대학 AMP입학추천권 (향후 10년간 매 학기 1명) 부여	○	○		
근조기 배치	○	○	○	○

경영대학 발전기금 출연안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실 (02-880-6900)

경영대학 홈페이지 <http://cba.snu.ac.kr>

기금 출연해주신 분들

다음은 지난 2019. 07. 01 ~ 2020. 01. 31까지 우리 대학에 기부해 주신 내용이다.

1,000만원 이상		
(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기업연구재단	200,000,000	
익명	100,000,000	40,000만원 약정
(주)아모레퍼시픽	60,000,000	
AMP 87기	50,000,000	
신라문화장학재단	50,000,000	
AMP총동창회	30,000,000	
(주)아이비엠시사	30,000,000	9,000만원 약정
동부문화재단	25,500,000	
(주)리브로	11,277,320	
박소정 (학사98, 석사02)	11,120,000	
CFO 28기	10,000,000	
100만원 이상		
고봉찬 (경영/학사87, 석사87)	9,120,000	
김우진 (경제/학사96)	9,120,000	
석승훈 (경영/학사86, 석사88)	9,120,000	
익명	9,120,000	
채준 (경제/학사86, 석사93)	9,120,000	
후원자 00749	9,120,000	
AAP 20기	5,100,000	
국기호 (경영/학사79)	5,000,000	
노원종 (경영/학사96)	4,610,000	1,200만원 약정
김대일 (경영/학사 88)	3,000,000	1,000만원 약정
학현사	3,000,000	
(주)한솔	3,000,000	
AAP 17기	2,258,068	
이대건 (경영/학사03)	2,200,000	
(주)한성티앤아이	2,000,000	
10만원 이상		
유한회사 본음인베스트먼트	500,000	
황인선 (경영/학사93, GMBA06)	350,000	60만원 약정
이현수 (SCP 2기)	300,000	1,004만원 약정
이상목 (경영/학사06)	210,000	36만원 약정
이훈근 (경영/학사70, 석사76)	200,000	
유경연 (경영/학사95)	175,000	100만원 약정
이광진 (경영/학사04)	140,602	140만원 약정
김봉경 (경영/석사92)	100,000	100만원 약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llegible]

대학원/MBA 학위				경영학과/경영전문				학부			
강경호(99)	송학준(90)	조재민(82)	조성익(EMBA 14)	이광열(AAP 17)	류덕현(AAP 297)	신동7(ABP 497)	이재우(AAP 677)	강근호(CFO 047)	장학주(CFO 127)	고상희	이성로
김재우(98)	신현(95)	현준영(박사 07)	조오현(EMBA 11)	최호상(AAP 167)	박병환(AAP 677)	안병환(AAP 597)	이창환(AAP 687)	강정환(CFO 127)	정종민(CFO 047)	관석호	조석재
권영호(98)	안영우(97)	최호상(96)	최창훈(GMBA 18)	한규진(AAP 167)	박성삼(AAP 547)	안용수(AAP 457)	이종환(AAP 507)	김종섭(CFO 067)	정철모(CFO 037)	권석재	차윤근
공민환(73)	유성태(99)	김신애(98)		김신애(ABP 267)	박세현(AAP 677)	안창환(AAP 687)	이한별(AAP 677)	류철환(CFO 127)	조효호(CFO 117)	장용학	
김대호(02)	이광준(00)	홍진호(00)		강재현(AAP 677)	박영권(AAP 677)	유근영(AAP 647)	장진규(AAP 647)	박경진(CFO 127)	최병재(CFO 127)	김경숙	최진호
김봉경(92)	이진환(84)	황광우(83)		조재현(AAP 677)	박유성(AAP 447)	장병국(AAP 187)	박성훈(CFO 017)	박태원(CFO 097)	김선갑		
김삼미(00)	이광현(99)	계명환(SJ MBA 09)		구종현(AAP 457)	박윤환(AAP 647)	유원환(AAP 677)	정석환(AAP 447)	서재현(CFO 077)	홍지우(AAP 027)	김영호	
김성현(99)	이훈(96)	김도영(GMBA 06)		권기환(AAP 097)	박정석(AAP 687)	유창환(AAP 677)	정재환(AAP 657)	사훈환(CFO 027)	김종섭(AAP 027)	김지형	
김영대(70)	이정환(94)	김진구(EMBA 10)		권오영(AAP 647)	박준환(AAP 027)	육근영(AAP 627)	조재환(AAP 627)	신동호(CFO 127)	이태원(CB 037)	민홍기	
김재윤(02)	이정훈(03)	김성민(EMBA 09)		공창태(AAP 387)	박한성(AAP 667)	윤영환(AAP 117)	조성환(AAP 487)	신재환(CFO 027)	고성우(S&OP 017)	박영진	
나경환(99)	이진경(82)	남성욱(GMBA 08)		김교준(AAP 677)	상기환(AAP 677)	전민환(AAP 677)	조성환(AAP 667)	안철환(CFO 067)	고기환(CF 027)	박정열	
류한달(96)	이훈(96)	남재진(SJ MBA 09)		김근환(AAP 067)	손경식(AAP 237)	이현(AAP 717)	조희환(AAP 677)	목경환(CFO 047)	김광현(CF 027)	신희재	
맹영준(99)	정호7(78)	배기(SJ MBA 09)		김중환(AAP 457)	이병재(AAP 197)	차문환(AAP 677)	이동훈(AAP 107)	성광환(CF 027)	성광환(CF 027)	유영록	
박동규(99)	정홍철(95)	신재진(SJ MBA 09)		김중환(AAP 287)	송진수(AAP 677)	이봉환(AAP 407)	최진수(AAP 537)	이상태(CFO 077)	이현수(CF 027)	유준성	
박만수(01)	조성준(92)	위태현(SJ MBA 08)		김주환(AAP 527)	송진환(AAP 677)	이세환(AAP 527)	최희환(AAP 677)	이수연(CFO 087)	신재환(CF 027)	이강숙	
박진하(04)	조성환(90)	이진(SJ MBA 10)		남정환(AAP 207)	신상우(AAP 327)	이만환(AAP 067)	한규환(AAP 427)	이만환(CF 027)	성광현(CF 027)	이도환	
박현준(00)	조성경(97)	장승희(EMBA 09)		노기환(AAP 207)	신상우(AAP 327)	이정환(AAP 067)	황복환(AAP 457)	임정환(CF 037)	최성환(CF 027)	이희하	

기업 단체					경쟁력 강화 교육 및 교직원						
경쟁력 대학지원	AAP117일동	AMP 707일동	CFO 17일동	CFO 207일동	다연호(지나)이명녀	아이씨티 소프트웨어	오성열(에스디넷)	한국경제(한국경제신문)	강성춘	백병현	조동성
단양지원 활동	AAP 127일동	AMP 717일동	CFO 27일동	CFO 217일동	비이오(지나)경우자정 제기	딜로이트(지나)김영남인	이영준(에스비스트먼서)	한국공항공사	고봉찬	송재국	조성곤
대우회	AAP 137일동	AMP 727일동	CFO 227일일동	CFO 227일일동	지연(지나)경우자정 제기	롯데(지나)송하	이영준(지나)이명녀제기	우주비즈니스	곽성현	신석훈	조성국
동원경영포럼27	AAP 147일동	AMP 737일동	CFO 237일일동	CFO 237일일동	한국농협(지나)김희수	유니브로	이영준(지나)경우자정 제기	한국기아(지나)의도(지나)	박근수	최소호	조호호
상대동정회	AAP 157일동	AMP 747일동	CFO 247일일동	CFO 247일일동	한국농협(지나)김희수	마솔	이주희(지나)탈	(주)한일	김영호	안종호	채준
서울(지나)경우자정 제기	AAP 167일동	AMP 757일동	CFO 257일일동	CFO 257일일동	82올가(지나)	민국자(지나)은혜	인진(지나)탈	중앙금융연구소	김연희	이단희	최소성
서울(지나)경우자정 제기	AAP 177일동	AMP 767일동	CFO 267일일동	CFO 267일일동	89가(지나)은혜	유원하(지나)은혜(지나)은혜	인진(지나)탈	창원(지나)탈	김상수	유영준	최희배
서울(지나)경우자정 제기	AAP 187일동	AMP 777일동	CFO 277일일동	CFO 277일일동	89가(지나)은혜	비이오(지나)이명녀	인진(지나)탈	(주)한일	김상수	유영준	최희배
최고경영자포럼 총동정회	AAP 207일동	AMP 787일동	CFO 287일일동	CFO 287일일동	이탈(지나)탈	삼성SDS	인스(지나)탈(지나)탈	(주)한일	김연희	최희배	최희배
AAP 17일동	AMP 287일동	AMP 797일동	CFO 107일동	CFO 107일동	(주)비이오(지나)탈	삼성(지나)탈	(주)비이오(지나)탈	한국(지나)탈	김우진	윤성재	최희배
AAP 27일동	AMP 617일동	AMP 807일동	CFO 117일동	CFO 117일동	농협	삼성투자(지나)탈(지나)탈	HSS Corporation	트리스(지나)탈(지나)탈	한대준	이영준	최희배
AAP 37일동	AMP 627일동	AMP 817일동	CFO 127일동	CFO 127일동	(주)비이오(지나)탈	(주)비이오(지나)탈	SK (지나)탈	한국(지나)탈(지나)탈	최희배	김영국	최희배
AAP 47일동	AMP 637일동	AMP 827일동	CFO 137일동	CFO 137일동	EMBA 17	삼성(지나)탈	SK (지나)탈	리뷰(지나)탈(지나)탈	최희배	김영국	최희배
AAP 57일동	AMP 647일동	AMP 837일동	CFO 147일동	CFO 147일동	EMBA 27	대우증권(지나)탈(지나)탈	삼성(지나)탈	SK (지나)탈	PSK	김진교	최희배
AAP 67일동	AMP 657일동	AMP 847일동	CFO 157일동	CFO 157일동	EMBA 37	대우증권	삼성(지나)탈	SK (지나)탈	(주)한일	이영준	최희배
AAP 77일동	AMP 667일동	AMP 857일동	CFO 167일동	CFO 167일동	EMBA 47	대진고	삼성(지나)탈	SK (지나)탈	패션(지나)탈(지나)탈	노상규	최희배
AAP 87일동	AMP 677일동	AMP 867일동	CFO 177일동	CFO 177일동	EMBA 57	(주)대진(지나)탈	삼성(지나)탈	SK (지나)탈	리뷰(지나)탈	박근수	최희배
AAP 97일동	AMP 687일동	AMP 877일동	CFO 187일동	CFO 187일동	EMBA 67	동부(지나)탈	삼성(지나)탈	SK (지나)탈	리뷰(지나)탈	박근수	최희배
AAP 107일동	AMP 697일동	AMP 887일동	CFO 197일동	CFO 197일동	EMBA 77	(주)대진(지나)탈	삼성(지나)탈	SK (지나)탈	리뷰(지나)탈	박근수	최희배

[illegible]

*위 내용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 사이에 발전기금을 출연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명단입니다.

